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연구결과 보고(요약) -

2005. 11. 18.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I. 연구 초점 및 분석 방법

1. 연구 초점

1999년 설립되어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이하 ‘푸른경기21’)는 경기도의 지방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거버넌스 기구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들을 전개해 오고 있음.

하지만, 지방의제21이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푸른경기21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청됨.

따라서 본 연구과제는 푸른경기21의 조직과 활동 유형 및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푸른경기21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 전략과 실천 과제들을 모색해 봄으로써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푸른경기21의 거버넌스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론을 개발·적용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 가능성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는 지방의제21의 두 가지 차원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 ‘사업’, ‘환경’, ‘성과’ 측면에서 종합적 진단을 시도함.
-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비교 중심의 양화된 조직분석 및 진단보다는 SWOT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춤
- 발전전략 유형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진단함으로써 푸른경기21 차원에서 대안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2. 분석 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제도와 비제도 영역을 아우르는 거버넌스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푸른경기21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종합 진단을 위해 ‘구조’, ‘환경’, ‘사업’, ‘성과’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분석 틀을 적용하였음.

- 구조(Structure): 푸른경기21을 구성하는 조직의 구조 및 운영 체계의 특성에 대한 진단(효율성과 민주성)
- 환경(Environment): 푸른경기21 실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치, 사회적 환경과 법적, 제도적 기반
- 사업(Program): 푸른경기21 실천 활동의 유형 및 사업내용과 양적, 질적 규모 및

특성

- 성과(Performance):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목표가치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전략적 가치의 실현 정도에 대한 평가. 생활환경, 자연환경, 사회환경 지표의 장기적인 변화 보다는 푸른경기21 실천 활동의 사회, 정책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에 초점.

3. 연구 방법

푸른경기21이 다루고 있는 주제(issue)와 참여 주체(actor)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다양한 연구 방법들의 유기적인 적용을 통한 종합 진단을 토대로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1)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 푸른경기21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푸른경기21 위원, 기초 의제 실무자 등) 2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 모집단 224명 중 최종 회수된 94개의 설문을 대상으로 분석함(회수율 42%)

2) 전문가 델파이조사

- 푸른경기21의 운영위원, 사무처, 중장기발전추진위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 전문가 모집단 25명 중 최종 회수된 16개를 대상으로 분석함(회수율 64%)

3) 기초자료 및 일차자료 분석

- 경기도 현황 및 푸른경기21 관련 일차자료를 통해 푸른경기21의 환경 분석
- 회의록 등 문헌자료를 통해 푸른경기21 운영 메카니즘과 사업내용 분석

4) 실무관련자 인터뷰

- 푸른경기21 사무처의 업무 분석을 위한 사무처 직원 7인 인터뷰를 통한 직무분석(job description)
- 담당 공무원 인터뷰

5) 초점집단 인터뷰

- 푸른경기21 운영위원, 사무처 실무자, 중장기발전추진위원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한 연구방향 및 분석틀 재구성

6) 분석결과의 종합과 SWOT 분석

- SEPP-SWOT matrix를 적용하여 중기 발전 방안 도출
(분석결과들을 구조, 환경, 사업, 성과 영역으로 종합한 후 SWOT 분석)

II. 푸른경기21 현황 진단

1. 푸른경기21 일반 현황 진단

1) 푸른경기21의 위상 및 역할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푸른경기21의 일반 현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1> ‘푸른경기21’ 조직 기반 및 운영 단위: 명(%)

설문내용	낮다	낮은편	보통	높은편	높다	평균
조직구성원의 다양성과 대표정도(무응답1)	5 (5.3)	29 (30.9)	30 (31.9)	27 (28.7)	2 (2.1)	2.91
행정의 지원정도(무응답1)	5 (5.3)	21 (22.3)	38 (40.4)	26 (2.77)	3 (3.2)	3.01
시민단체/주민조직의 협력정도(무응답1)	3 (36.2)	23 (24.5)	39 (41.5)	25 (26.6)	3 (3.2)	3.02
일반시민/주민의 참여정도 (무응답2)	34 (34.6)	37 (39.4)	20 (21.3)	1 (1.1)	0 (0.0)	1.87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 정도 (무응답1)	6 (6.4)	11 (11.7)	44 (46.8)	28 (29.8)	4 (4.3)	3.14
조직운영의 투명성 정도 (무응답1)	5 (5.3)	12 (12.8)	39 (41.5)	32 (34.0)	5 (5.3)	3.22

- 지역주민들의 낮은 참여, 조직 운영에 대한 높은 신뢰

시민단체 및 조직의 협력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보통 또는 높은 편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은 반면, 일반시민 및 주민의 참여정도는 낮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 이는 ‘푸른경기21’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앞으로 참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의사 결정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직운영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많아, 조직 운영에 대해 비교적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표2> ‘푸른경기21’의 현재의 역할과 위상

단위: 명(%)

설문내용	아니다	비교적 아니다	보통	비교적 그렇다	그렇다	평균
참여 주체들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비전과 목적을 공유 (무응답1)	4 (4.3)	20 (21.3)	33 (35.1)	32 (34.0)	4 (4.3)	3.13
참여 주체들의 경험과 정보 공유(무응답1)	4 (4.3)	22 (23.4)	46 (48.9)	19 (20.2)	2 (2.1)	2.92
주민들의 생활 및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무응답1)	8 (8.5)	44 (46.8)	29 (30.9)	12 (12.8)	0 (0.0)	2.48
공공정책 결정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무응답3)	7 (7.4)	39 (41.5)	28 (29.8)	16 (17.0)	1 (1.1)	2.62
지역사회의 조직들 간에 상호이해 및 신뢰에 기여(무응답2)	3 (3.2)	31 (33.0)	33 (35.1)	20 (21.3)	5 (5.3)	2.92
지역사회의 지원과 인력의 효율적 동원, 활용하는데 기여 (무응답1)	3 (3.2)	43 (45.7)	24 (25.5)	22 (23.4)	1 (1.1)	2.73
지역사회 주요현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기여 (무응답1)	7 (7.4)	46 (48.9)	33 (35.1)	5 (5.3)	1 (1.1)	2.76
지역주민들이 지역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기여(무응답3)	13 (13.8)	44 (46.8)	21 (22.3)	11 (11.7)	2 (2.1)	2.40
정부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데 기여	17 (18.1)	48 (51.1)	19 (20.2)	7 (7.4)	2 (2.1)	2.24
지역사회의 갈등을 협의하는데 기여(무응답1)	11 (11.7)	46 (48.9)	26 (27.7)	10 (10.6)	0 (0.0)	2.38

-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의견제시 기회 제공, 주민생활 및 의식변화에 대한 영향 미약함

-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한 영향, 갈등 협의 능력이 미약함

<표2>에 나타난 ‘푸른경기21’의 활동과 위상의 설문결과에서 (주민들의 생활 및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공공정책 결정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지역사회의 지원과 인력의 효율적 동원, 활용하는데 기여), (지역사회 주요현안

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기여), (정부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데 기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협의하는데 기여)의 설문문항들에서 ‘비교적 아니다’ 라고 답한 응답이 각각 50%를 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푸른경기21’의 위상과 활동이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3> ‘푸른경기21’의 활동

단위: 명(%)

설문내용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비교적 그렇다	그렇다	평균
경기도 행정에 대한 의제설정/ 집행활동의 자율성 보장 여부	5 (5.3)	12 (12.8)	30 (31.9)	43 (45.7)	4 (4.3)	3.3.1
활동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여부	14 (14.9)	36 (38.3)	23 (24.5)	19 (20.2)	2 (2.1)	2.56
활동을 통한 사회문화/제도적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무응답1)	3 (3.2)	19 (20.2)	22 (23.4)	46 (48.9)	3 (3.2)	3.43
경기도 지역주민이 활동에 대한 인지도 여부	25 (25.6)	54 (57.4)	12 (12.8)	2 (2.1)	1 (1.1)	1.94

- 지역주민의 인지도가 매우 낮음, 제도적 기반 역시 낮음

<표3>의 결과에서 경기도 행정에 대한 자율성 보장여부는 긍정적인 대답의 비율이 높았으나, 활동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여부는 비교적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경기도 지역주민의 ‘푸른경기21’ 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주민 인지도 부분에 대한 개선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내용
사무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조직 관리 총괄 ● 대외협력 총괄 ● 각종 사업 총괄 ● 경기도 행정 참여
정보관리팀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조직 관리 ● 사업진행관리 ● 대외협력 총괄
정보관리팀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조직관리 지원 ● 행정업무 ● 대외협력지원
사업기획팀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재작성 기획 및 진행 총괄 ● 의제재작성 진행: 문화관광 분야 ● 기획사업 기획 ● 분과관리: 도시사회분과 ● 정책사업: 경기정책포럼
사업기획팀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사업 총괄 ● 어울 한마당 총괄 ● 의제재작성 진행: 청소년, 사회복지분야 ● 분과관리: 여성분과 ● 실무자 교육
사업기획팀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사업 진행 ● 의제재작성 진행: 농업분야 ● 사업진행, 대외협력 지원 ● 분과관리: 자연생태분과
사업기획팀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재작성 진행: 대기 및 에너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분야 ● 환경교육사업 지원 ● 분과관리: 생활환경 분과 ● 기획사업 기획 지원

<표6> 공통적인 핵심적 업무 역량

능력	기술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에 대한 비전 - 설득력 - 창의력 - 조직,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 신속한 판단력 - 조정능력 - 기획능력 - 정보수집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기술 - 행사진행 기술 - 보고서 작성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관련 지식(환경, 여성, NGO, 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 시민활동에 대한 경험과 이해

<표7> 직무 분담체계의 특징과 과제

특징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분담 세부항목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의 축적과 전달을 위한 학습체계가 미흡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획팀의 경우, 의제재작성과 분과 관리가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분야별로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 있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상대적으로 정보관리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단순업무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분담이 일정한 원칙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적은 인원, 많은 업무 때문에 유동적 업무조정이 수시로 필요함 - 홍보, 정보화, 기획분야의 전문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된,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 비관료화된 의사결정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이나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고 원칙보다는 비공식적 의사결정이 반영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개별 담당자의 기획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구조가 되면 장점이 될 수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비공식적 연결망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계획을 실천하기에 사무처장의 임기가 짧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장기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사무처장 임기 고려

2. ‘구조’ 분석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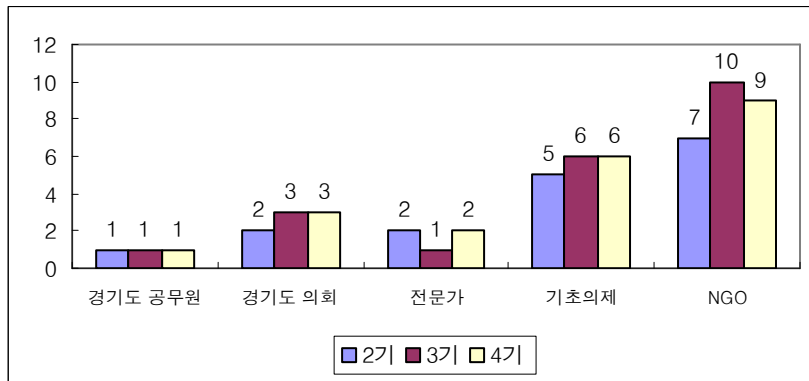
푸른경기21의 구조 분석에는 크게 ‘실천협의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대표성’, ‘실천협의회 내부 파트너십’, ‘시민단체/주민단체의 참여’, ‘시민/주민의 참여’, ‘행정의 지원’,

‘평가환류체계’ 등 6가지 항목이 적용되었다.

1) 운영위원회 인적구성

실천협의회 인적구성은 ‘푸른경기21’의 주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현재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크게 시민사회의 대표인 NGO관계자, 지역의 대표인 지방의제 관계자, 교수나 기업인 등 직능 대표인 전문가, 도공무원과 도의회의원 등 4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그림은 운영위원회의 각 그룹별 구성원 수를 기수별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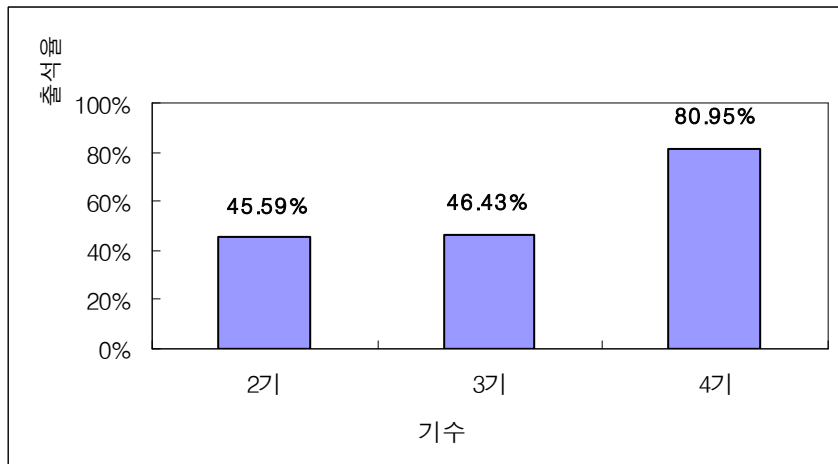
<그림1> 기수별 운영위원 소속집단 현황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기초의제와 NGO의 비중이 꾸준히 높았다. 그 이유는 ‘푸른경기21’이 경기도 전역을 포괄하는 광역 의제이므로 각 지역 단체들의 도움과 참여가 필요하고, 또 현재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기초의제와 NGO와 긴밀히 협력하며 공동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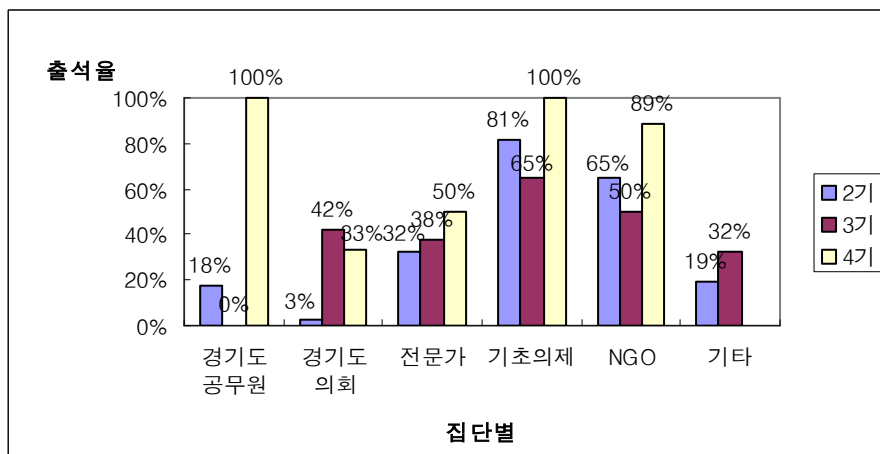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은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출석률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2> 기수별 운영위원 출석률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3기에 비하여 4기 운영위원회의 출석률이 월등히 높아졌다. 운영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출석률을 소속집단별 출석률의 변화로 표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3> 운영위원 소속집단별 출석률 변화



4기 경기도 공무원의 출석률과 기초의제 관계자들의 출석률이 100%를 달성하였다. 경기도 공무원은 1명이지만 기초의제 관계자들은 6명이므로 이들의 출석률이 전체적인 출석률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NGO 관계자 9명의 출석률도 90%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다. 이를 통해 NGO와 기초의제가 ‘푸른경기21’을 끌어가는 원동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초의제와 NGO의 비중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대표되어 온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충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교수, 기업인,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푸른경기21 내부 파트너십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행정부와의 의사소통, 지역의제와의 의사소통, ‘푸른경기 21’ 내 활동가들간의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푸른경기21’은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있다.

‘푸른경기21’의 내부 파트너십은 공개성, 민주성, 평등성을 충족시켰다. 회의 안건이 사전에 배포되어 정보의 공개성을 만족시켰고,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공개된 회의에서 결정을 내림으로써 민주성을 만족시켰다. 아울러 누구나 발언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성을 충족시켰다. 그 결과 조직운영의 투명성이 고양되었다.

앞으로는 ‘푸른경기21’이 보다 더 나은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참여 폭을 확장시켜 활동의 전문성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시민사회의 주요 자원이고 지역 여론 형성자로서 네트워크화의 한 축이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사업과 정책개발 등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원이다.

3) 시민단체/주민단체의 사업 참여

‘푸른경기21’의 공모사업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였고, 다년간 사업실천 단체로 선정된 단체들도 많았다. 1개 단체(수원환경운동센터)는 99년에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총 6회에 참여하였으며, 5개 단체가 5회, 5개 단체가 4회, 11개 단체가 3회, 13개 단체가 2회, 46개 단체가 1회 참여하였다.

(6회: 수원환경 운동센터 / 5회: 경기복지 시민연대, 안산 YMCA, 안양YMCA, 군포환경 자치시민회, 시흥환경 운동연합 / 4회: 시흥YMCA, 안산경실련, 의정부YMCA, 분당환경 시민의 모임, 평택환경 운동연합 / 3회: 경기여성연대, 광명경실련, 광명 YMCA, 구리YMCA, 부천경실련, 수원KYC, 녹색자치 경기연대, 안산YMCA, 풀뿌리환경센터,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센터, 하늘동산21 / 2회: 군포YMCA, 남양주YMCA, 부천YMCA, 성남YWCA, 수원YMCA, 안양시민대학, 전국문화, 성인기초 교육협의회, 한탄강 네트워크, 경기북부환경 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오산화성환경 운동연합, 경기도에너지 시민연대)

<표8> 공모사업 참여 회수별 단체수

참여회수	단체수	백분율
6	1	1%
5	5	6.2%
4	5	6.2%
3	11	13.6%
2	13	16.0%
1	46	56.8%
합계	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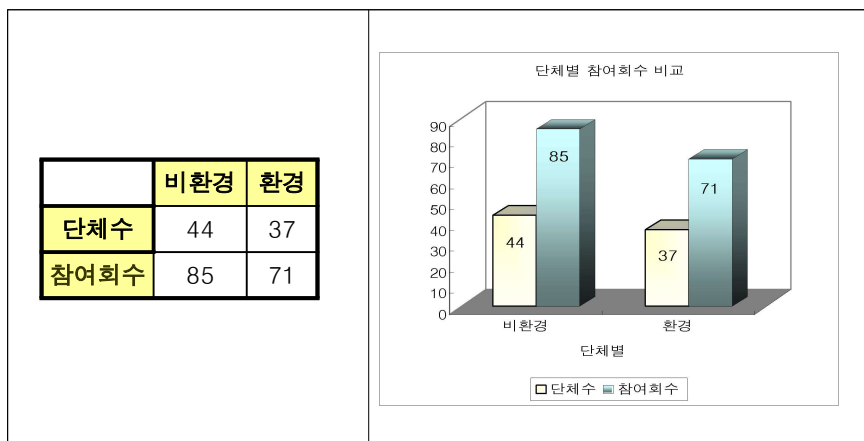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4-6회 참여한 단체수가 백분율로 24%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특정 단체들이 공모사업을 독점하지 않고 다양한 단체들에게 참여 기회가 배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회 참여한 단체들이 백분율로 56.8%에 해당할 만큼 많은 이유는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여, 많은 단체들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공모사업 시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기 사업 선정 과정에 반영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참여단체들을 환경관련 단체와 나머지 단체들로 나누어 보았을 때, 비환경 단체들의 참여회수가 조금 더 많았다. 즉 총 37개의 환경관련 단체가 71개의 사업에 참여한 반면, 총 44개의 비환경단체가 85개의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푸른경기21’의 일반공모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 가운데 환경분야 단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많은 단체들의 사업 참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민과 주민단체의 직접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광역의체로서 ‘푸른경기21’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4> 환경 및 비환경 단체별 사업참여 현황



4) 행정의 지원

푸른경기21은 경기도 행정으로부터 예산과 공간 등을 지원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물질적 토대 위에서 활발한 의제 실천활동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행정의 참여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

우선 푸른경기21에 대한 경기도 행정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푸른경기21을 도정의 홍보와 캠페인성 실천사업의 대행자 수준을 넘어 도정의 적극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긴밀한 협의 및 협력체제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푸른경기21은 기초의제 및 지역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화하고 있는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정책을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책임자다. 따라서 푸른경기21에게 도 행정과 지역 시민사회를 매개하고 실천을 촉진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에 대한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한 사례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아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행정과 시민사회가 모두 만족할 대안을 민주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전문가적 조언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나아가 푸른경기21과 관련한 네트워크 체제를 적극 활용하여 실천 역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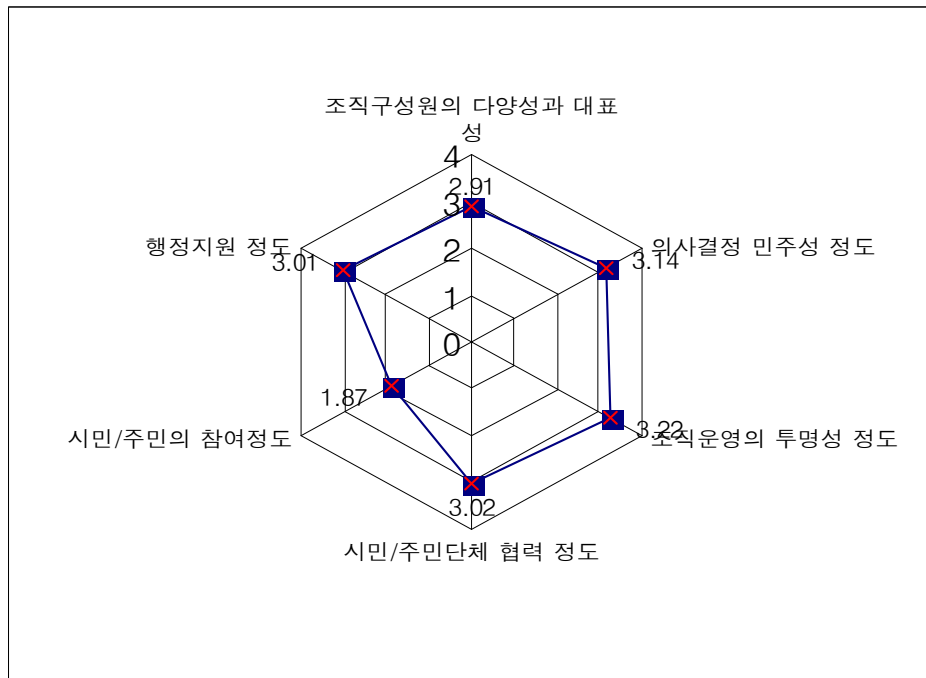
5) 평가 및 환류 체계

공모사업에서는 평가 및 환류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평가과정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사업의 평가는 사업 진행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러한 평가 시스템이 없고, 사업 평가 결과를 누적적으로 분석하여 되풀이 되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환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총회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다음 해 감사에서도 지적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전년도 감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평가 및 환류 체계가 역동적이지 못하면 조직의 의사결정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특히 ‘푸른경기21’에서는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므로, 운영위원회에서 타성적 결정보다 집중토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매 단계에서 체계적인 평가.환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구조 분석 종합

<그림5> 구조 분석 종합 (평균값=2.86)



■ 강점

분석의 결과, 푸른경기21의 구조에서 강점으로 꼽힌 것은 “의사결정 민주성” (3.14) “조직운영의 투명성” (3.22)으로 파악된 <실천협의회 내부파트너십> 부분이었다. 다음으로 높은 것은 <시민/주민단체의 협력>(3.02)이었다. <행정의 지원> 부분도 3.01로서 보통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 약점

상대적으로 <실천협의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대표성>(2.91), <일반 시민/주민의 참여>(1.87)가 약한 부분으로 파악되었다. 시민/주민단체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시민/주민의 직접 참여가 낮다는 것은 푸른경기21이 광역 차원의 조직으로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 사업에 있어서는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종합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시민/주민단체의 협력에 있어서 푸른경기21은 구조적 차원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비교적 조직의 내적 응집력이 강하며, 조직화된 형태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도 비교적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회의자료 분석 결과, 행정의 실질 참여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의 안정적인 지원과 실제 참여 부족은 푸른경기21에서 행정이 차지하는 이중적 위상을 보여준다. 즉 행정은 지원은 하지만, 실제적인 참여는 하지 않고 있어 민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기능에 부분적으로만 기여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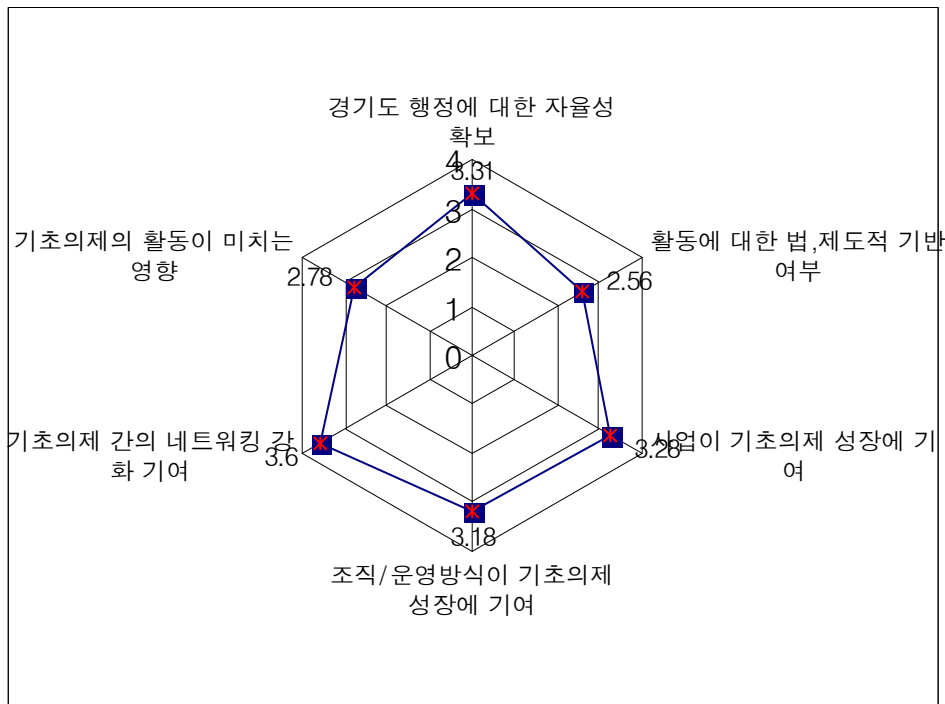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푸른경기21 참여자의 대표성과 다양성, 일반주민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성이 보인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후자의 경우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일반주민의 참여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을 때,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다양한 참여자 균을 확보하고 지역 내 다양한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기초의제협의회의로 구성되는 지금의 푸른경기21 내부 조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환경’ 분석 및 결과

푸른경기21의 환경에 대한 분석은 크게 ‘경기도 내 기초의제와의 네트워킹’, ‘제도적 자율성’, ‘법적, 제도적 기반’,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의제21에 대한 공무원의 인지도’ 등 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그림5> 환경 분석 결과의 종합 (평균값=3.12)



기초의제와의 네트워킹은 다시 기초의제간 네트워킹 강화에의 기여, 푸른경기->기초의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 기초의제->푸른경기 활동에의 영향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중 이해관계자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지원예산의 규모와 지방의제21에 대한 공무원의 인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강점

<기초의제간 네트워크 강화에의 기여>(3.60)와 <기초의제 성장에의 긍정적인 영향>(“푸른경기21 사업 --> 기초의제 성장에 대한 기여 정도” (3.28)와 “푸른경기21의 조직 및 운영방식 --> 기초의제 성장에 대한 기여 정도” (3.18) 두 가지 문항으로 측정됨. 두 문항의 평균값은 3.23) 부분에 있어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행정에 대한 자율성>(3.31)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약점

반면 <기초의제 활동 --> 푸른경기21에 대한 영향력>(2.78)이 낮게 나타나 기초의제와 푸른경기21과의 관계에서 기초의제는 의존적 수혜자 위치에 놓여 있어 앞으로 동등한 파트너로서 위상과 역할 정립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푸른경기21 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2.56)은 낮은 평가점수를 보이고 있다.

■ 종합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의제와의 네트워크와 행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두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의 여지없이, 기초의제와의 네트워크 부분은 푸른경기21의 가장 큰 강점이다. 푸른경기21의 사업 뿐 아니라, 조직기반과 운영방식이 기초의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의제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의제 활동이 푸른경기21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어, 기초의제와의 네트워크의 향후 전개방향에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하여 강점으로 결합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기초의제활동과 푸른경기21 사업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 ‘비교적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49%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값도 3.29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초의제와 푸른경기21 간의 상호역할 구분의 모호성 정도에 있어서도 3.17의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향후 기초의제 간의 네트워크 지원의 현재 강점을 살리되 기초의제와 푸른경기21 간의 역할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초의제와 푸른경기21간의 상호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른 한편 행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기도 행정으로부터의 높은 자율성은 강점이지만, 동시에 행정으로부터의 법적·제도적 기반 지원 부분은 매우 큰 약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실상 이 두 부분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 즉 법적 제도적 지원이 견고하면 행정으로부터의 높은 자율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점을 강화할 것인지, 약점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된다.

4. ‘사업’ 분석 및 결과

사업분석은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공모사업은 경기도 지역 시민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며, 참여 주체들이 지역 현안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푸른경기21의 핵심적인 활동 영역이다. 푸른경기21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제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의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업 경험을 축적하여 점차 자체적인 정책개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

푸른경기21의 공모사업 분석에는 사업 영역을 사회환경, 생활환경, 자연환경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하에서 자연환경사업은 가능한 한 자연생태의 원형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생활환경사업은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환경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사업을, 사회환경사업은 인간과 인간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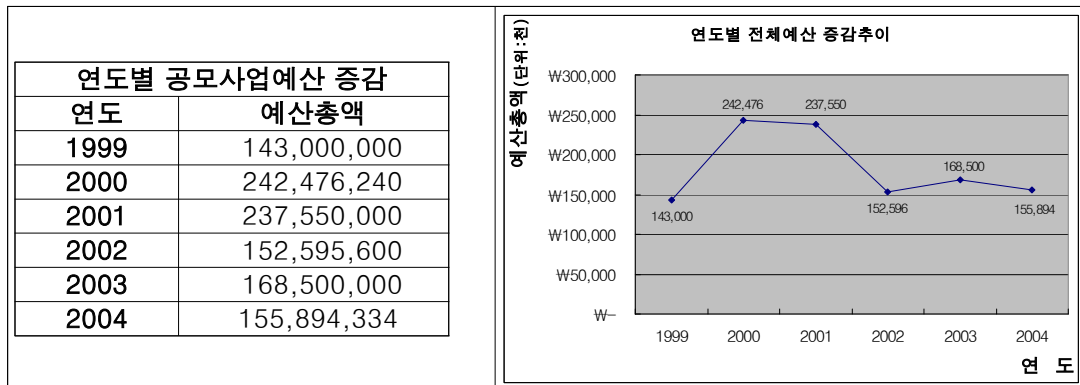
이렇게 분류한 공모사업의 분류가 초기의 9분류(대기와 에너지, 하천과 습지, 생태도시, 폐기물과 자원순환형 사회만들기, 해양생태계와 시화호, 사회복지, 주민자치와 녹색마을 만들기, 환경교육, 환경과 기업)에서 현재의 4분류(도시사회, 생활환경, 여성, 자연생태) 체계로 변하여, 비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공모사업을 분석해야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1999, 2001, 2003년의 사업만 분석하였다.

1) 사업부문별 사업수 및 예산 증감

먼저 예산을 살펴보자. 아래의 좌측 표는 연도별 공모사업 총예산액이고 오른쪽 그림은 총예산액의 증감을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6> 연도별 공모사업예산 증감



전체 예산은 평균 1억 8천만원 선을 유지하였으며,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던 2000년과 2001년에 2억원을 넘었다(애초의 계획안은 각각 175,000,000원과 140,000,000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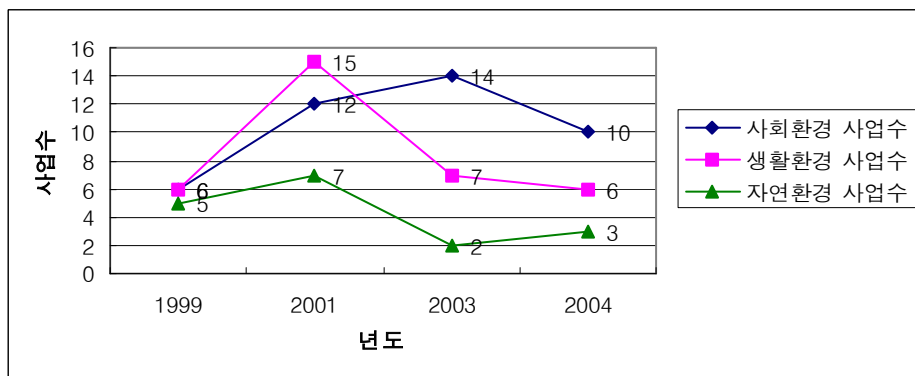
아래의 표는 각 연도에 따라 사업내용별로 시행된 사업의 수와 그에 배정된 예산을 보여주고 있다.

<표9> 연도별/사업내용별 예산증감 추이 및 사업수

연도별/사업내용별 예산증감 추이와 사업수						
연도	사회환경 사업수	사회환경예산	생활환경 사업수	생활환경예산	자연환경 사업수	자연환경예산
1999	6	35,000,000	6	65,000,000	5	43,000,000
2001	12	74,250,000	15	90,500,000	7	66,800,000
2003	14	98,500,000	7	56,000,000	2	14,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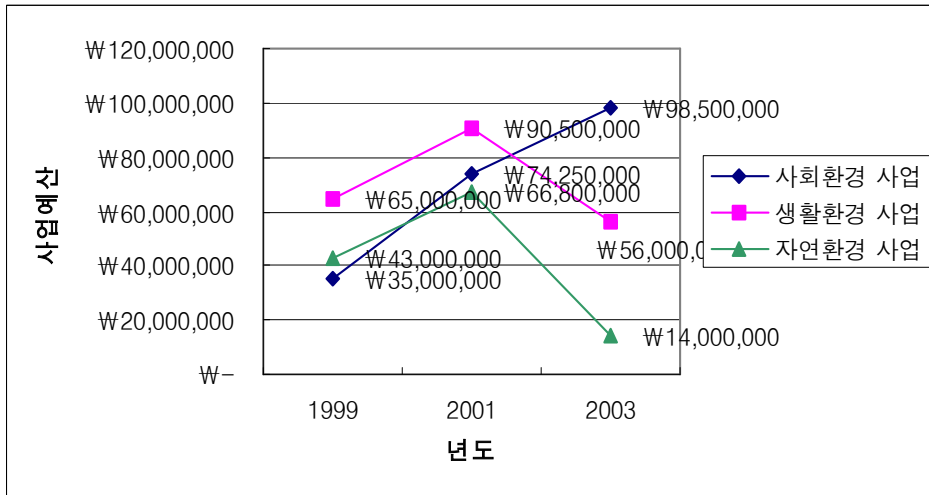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은 위의 표에서 연도별 사업수의 증감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사회환경 사업수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에, 자연환경 사업수는 극적으로 감소되었음을 보여준다. 사회환경 사업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도시사회와 여성 부문의 사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림7> 유형별 사업수



아래의 그림은 연도별, 사업내용별 예산 총액의 증감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그림에서 사업수가 증감한 것과 연동되어, 예산 총액도 비례적으로 증감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 유형을 불문하고 기본적인 필요 경비를 모두 지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8> 연도, 사업내용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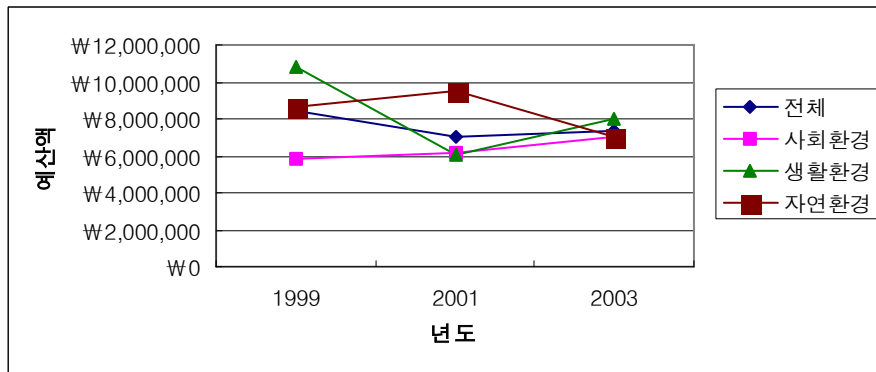
아래의 표는 연도별 전체사업에 지원된 사업비 중 1개 사업당 지급된 평균 예산과 사회환경, 생활환경, 자연환경 부문에 지원된 사업비 중 1개 사업의 평균 예산을 정리한 것이다.

<표10> 연도별 사업 평균예산

각연도별 사업 평균예산				
	전체	사회환경	생활환경	자연환경
1999	8,411,764	5,833,333	10,833,333	8,600,000
2001	6,986,764	6,187,500	6,033,333	9,542,857
2003	7,326,086	7,035,714	8,000,000	7,000,000

위의 표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999년과 2001년에 사업부문별 평균예산의 차이가 컸지만, 2003년에는 그 폭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거의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연도의 예산 총액 및 시행사업수와 관련된 것으로, 상대적인 특성을 보여줄 뿐 질적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림9> 연도별 사업 평균예산



이와 같이 참여 단체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돌아가도록 예산을 분배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 다양한 지역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성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2) 사업시행 유형

공모사업의 실천 유형을 교육, 조사, 토론회, 캠페인, 현장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캠페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홍보사업을, 현장활동은 특정한 목표 집단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는 ‘푸른경기21’ 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활용한 사업방식 유형 수를 나타낸 것이다. 한가지 사업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업 방식을 병행할 경우에는, 각 유형의 총수를 합산하였다. 따라서 사업수보다 사업 유형수가 더 크게 나타난다.

<표11> 연도별 유형별 사업수

연도별/사업유형별 사업수						
연도	교육	조사	토론회	현장활동	캠페인	기타
1999	9	12	10	11	4	1
2001	27	28	9	27	4	0
2003	21	15	4	16	2	0
2004	13	11	3	10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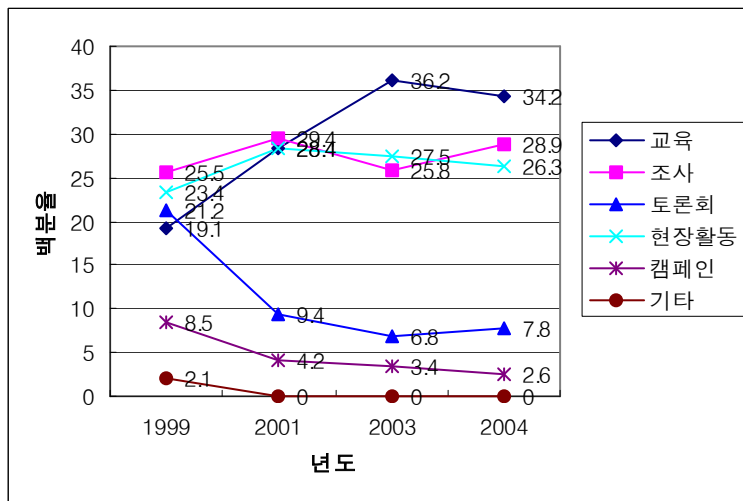
아래의 표는 매년 사업유형의 총 수에서 각각의 사업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표에서 1999년에 공모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이 사용한 사업유형은 총 47개 였는데 그 중에서 교육 유형이 9개였으므로, 교육이 차지하는 1999년의 사업유형별 비율은 19.1%이다.

<표12> 연도별/사업유형별 비율

	교육	조사	토론회	현장활동	캠페인	기타
1999	19.1	25.5	21.2	23.4	8.5	2.1
2001	28.4	29.4	9.4	28.4	4.2	0
2003	36.2	25.8	6.8	27.5	3.4	0
2004	34.2	28.9	7.8	26.3	2.6	0

위의 표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10> 연도별/사업유형별 비율



위의 표를 보면 사업유형 중 토론회와 캠페인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론회와 캠페인은 2001년 이후 전체 사업 유형 비율에서 10%를 넘지 못하였다. 토론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캠페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일방적 홍보사업으로써 특정 다수를 목표로 집단으로 상정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사회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조사사업, 현장활동, 교육은 특정 다수와 특정 지역을 명확한 목표로 상정하여, 사업 주관자와 대상자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고 유력한 사업 유형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에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장차 ‘푸른경기21’의 진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사업 분석 종합

■ 강점

푸른경기21의 공모사업은 다년간의 경험, 운영의 투명성, 도내 단체들 내에서의 인지도, 도내 단체들의 높은 참여율로 인해 경기도내 시민참여적 실천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푸른경기21 공모사업은 사업 수행 주체의 안정성, 사업 수행 과정의 투명성을 통해 축적한 사업에 대한 신뢰성에 커다란 강점이 있다.

■ 약점

푸른경기21 의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 공모사업의 특성상 공모 주제 선정과 심사 과정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실천사업의 성과가 축적되어 모델화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종합

푸른경기21의 공모사업이 투명성, 안정성 등을 통해 신뢰성을 쌓은 점은 커다란 장점이다. 이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푸른경기21의 사업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와 기초 의제들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모사업은 그 특성상 단기적인 성과를 생산해야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관 단체들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모사업을 푸른경기2'의 주요 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 혹은 공모사업의 형식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인지를 재고할 시점이다.

5. ‘성과’ 분석 및 결과

푸른경기21의 성과 평가에 있어 본 연구는 환경지표 및 사회경제지표 개선 등을 사용하는 일반 연구와는 달리, 사회적, 정책적 영향력 행사, 지역주민 인지도 개선, 참여 효능감 증진을 기준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중 사회적 영향력 항목은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화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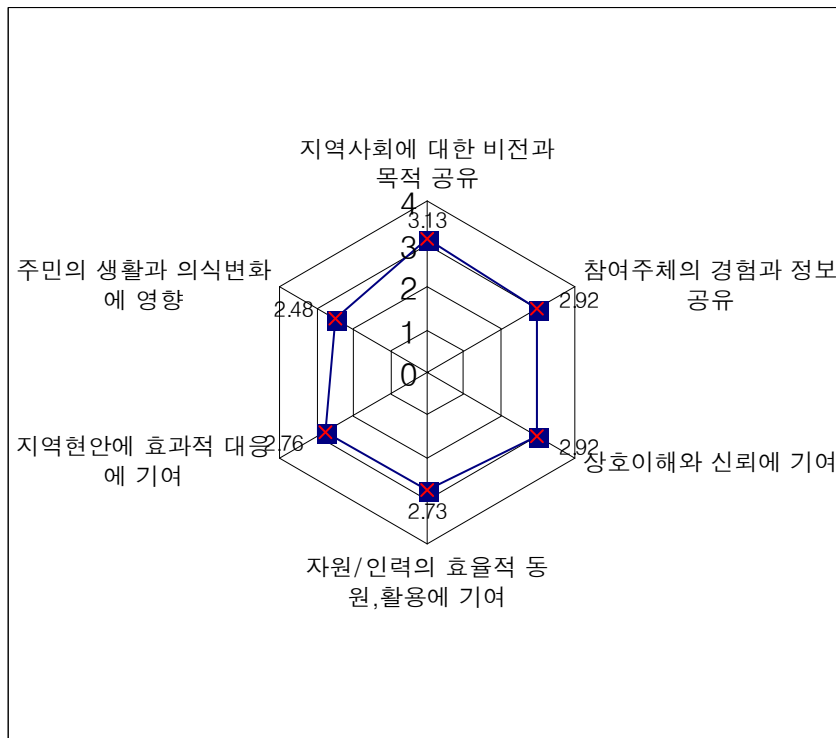
- 참여주체들간의 응집성 강화
 - 참여주체들 간 지속가능성의 비전과 목표 공유
 - 참여 주체들 간 경험과 정보 공유
-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 지역사회 조직 간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에의 기여
 - 지역사회 자원과 인력의 효율적 동원에서의 기여
- 지역사회 문제해결 기여
 -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효과적 대응
 - 생활 및 의식변화에의 영향력 등의 세부지표로 구분된다.

반면, 정책적 영향력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정책 결정 및 집행에의 영향력
- 지역주민의 정책과정 참여기회 제공
- 정부 정책과 관련된 정보제공 기능
- 지역사회 내 갈등의 조정과 협의 등의 4가지 지표로 구분된다.

1) 사회적 영향력

<그림11> 푸른경기21의 사회적 영향력 분석



■ 강점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 특히 강점으로 부각된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비전과 목적 공유” (3.13)였다. 참여 주체간의 응집성 강화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지표인 “참여주체의 경험과 정보공유” 는 2.92로 이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회적 영향력 지표 중 푸른경기21의 가장 큰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된 것이 이 두 지표를 포함한 <참여주체들 간의 응집성 강화> 부분이었다.

“지역단체들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여” (2.92)와 “자원, 인력의 효율적 동원 및 활용에 기여” (2.73)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지표로서, <참여주체들 간의 응집성 강화> 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비교적 높은 평가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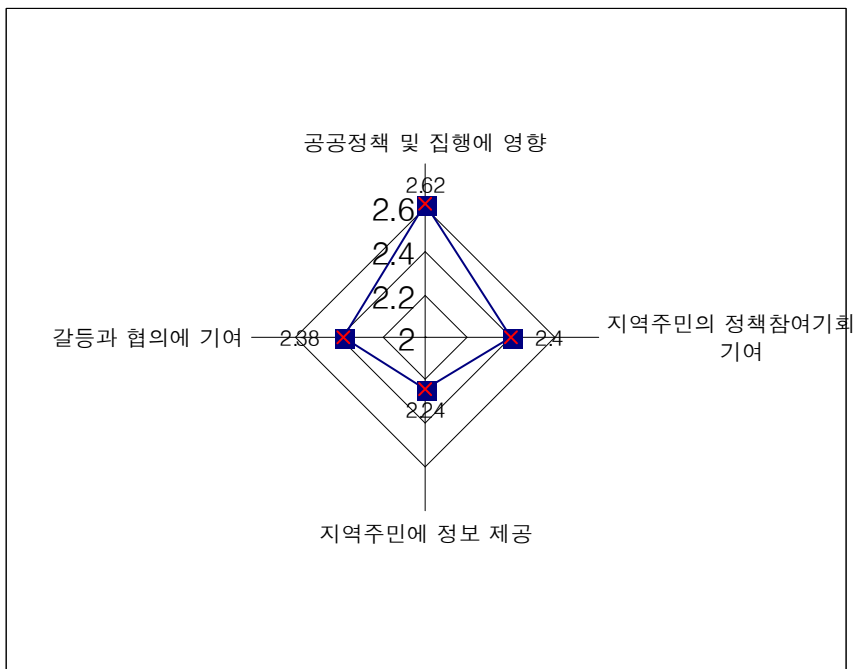
개별 지표로 보았을 때, 지역단체들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에의 기여는 푸른경기21의 강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약점

<지역사회 문제해결 기여>는 성과 차원의 대표적 약점이다. 이 중에서도 “지역현안에 효과적 대응”(2.76)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주민의 생활과 의식 변화에 영향”(2.48)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자원, 인력의 효율적 동원 및 활용에 기여”가 2.73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을 함께 고려할 때, 푸른경기21의 사회적 성과 차원에서의 약점은 자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생활에의 영향력 미약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2) 정책적 영향력

<그림12> 푸른경기21의 정책적 영향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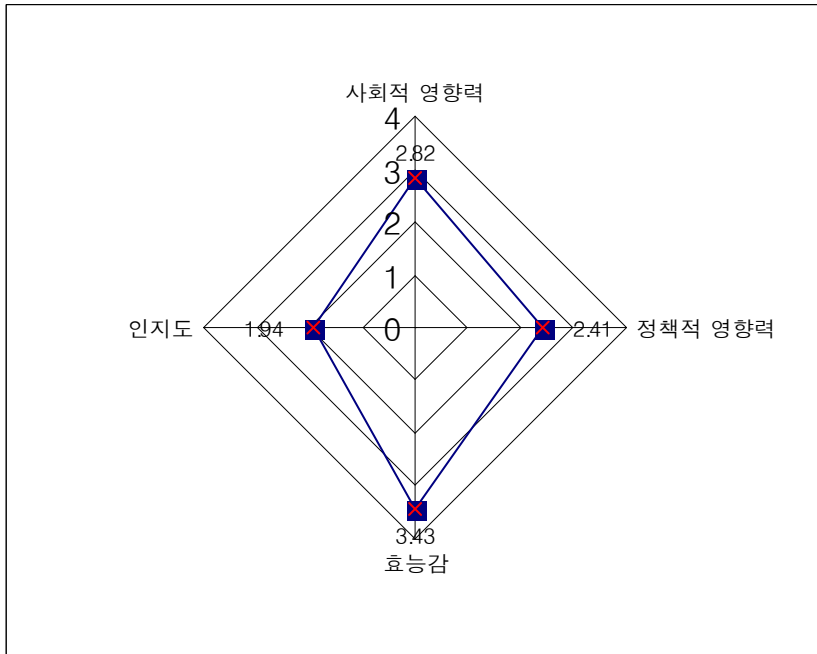
■ 약점

정책적 영향력은 평균 2.41로서 사회적 영향력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정책적 영향력의 세부지표들 간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공공정책 및 집행에의 영향력”이 2.62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에의 기여”(2.40), “갈등 및 협의에의 기여”(2.38)가 따르고 있다.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영향력 항목은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푸른경기21이 이 항목에 있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3) 성과 분석 종합

<그림13> 성과분석 종합(평균값=2.65)



이들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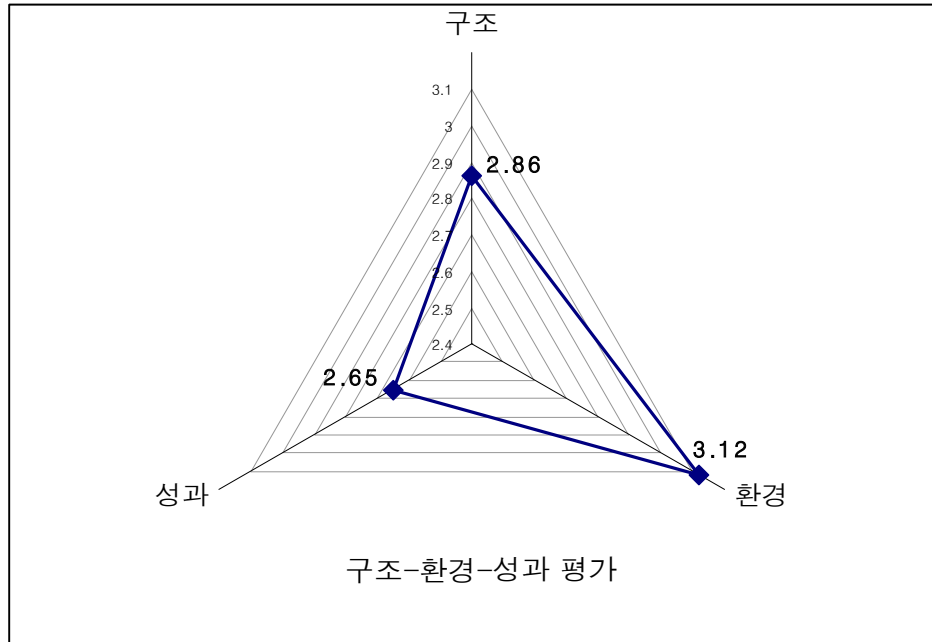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가지 항목을 서로 비교해 보면, 참여의 효능감이 3.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2.82, 정책적 영향력 2.4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푸른경기21에 대한 인지도 개선 성과(1.94)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성과 부분의 자체 평가 점수는 구조와 환경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성과 차원의 세부지표들을 다시 강점과 약점으로 분류하면, “참여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비전과 목적 공유,” “참여주체의 경험과 정보공유,” “지역단체들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여” 등이 <푸른경기21>의 성과 차원의 강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강점으로서 참여 효능감 증대(3.43)를 들 수 있다. 즉 이 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적극적인 기대의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지역현안에 효과적 대응” 과 “주민의 생활과 의식변화에 영향,” “자원, 인력의 효율적 동원 및 활용에 기여” 등은 성과 차원의 약점으로 분류된다. 그 외 미약한 정책적 영향력 역시 대표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지역주민의 인지도 개선” 에 있어서도 매우 영향력이 작다.

6. 분석 소결

<그림14> 푸른경기21 구조-환경-성과 분석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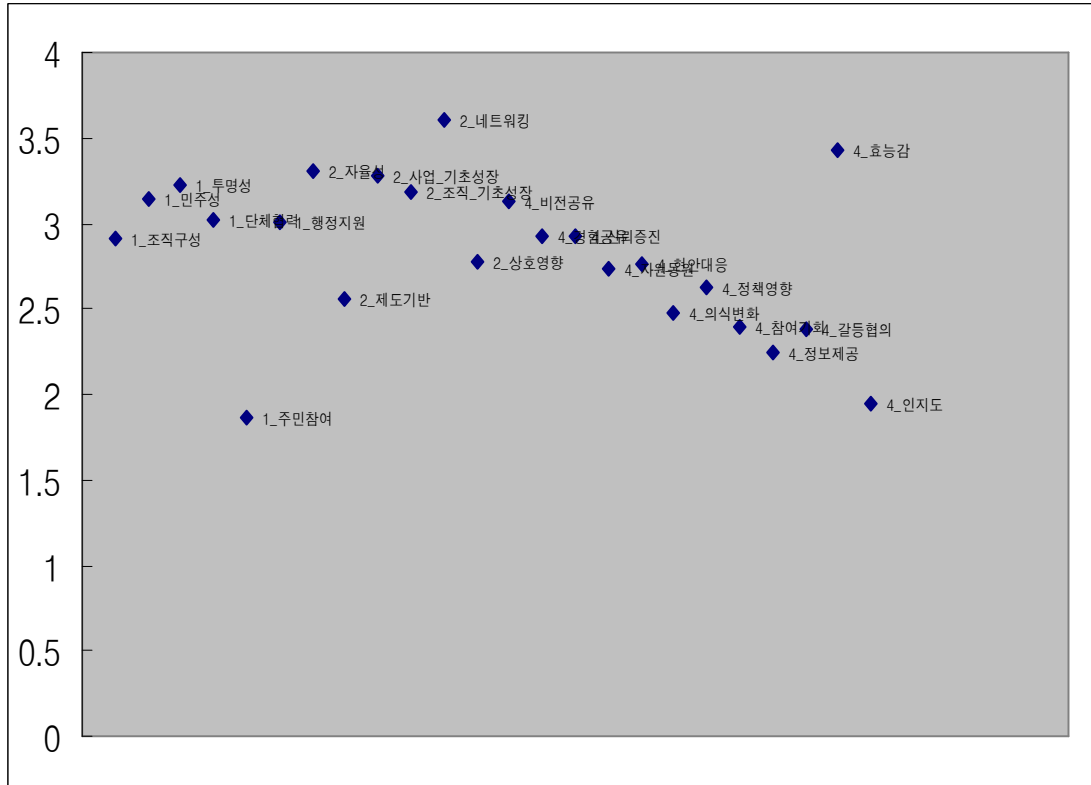
푸른경기21은 환경적 측면에서 기초의제와의 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 측면에서 행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푸른경기21과 기초의제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푸른경기21의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구성 형식을 갖추었지만 참여구성원들이 다양한 사회집단으로부터 대표성을 갖추는 데는 미약하다. 또한 행정으로부터의 지원은 있지만 실질적 파트너로서 참여는 저조하며, 지역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면서 실질적인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제반 조건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른경기21이 만들어내는 성과로 참여주체들 간의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비전과 경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조직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책적 영향력이나 일반주민의 생활 및 의식 변화라는 심층적인 영향력의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 포함된 세부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기 위해 각 평균값을 도표 위에 나열해 놓은 것이 아래 도표이다. 2.9 ~ 2.9 점을 기준으로 하여, 푸른경기21의 강점과 약점 요인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림15> 푸른경기21 분석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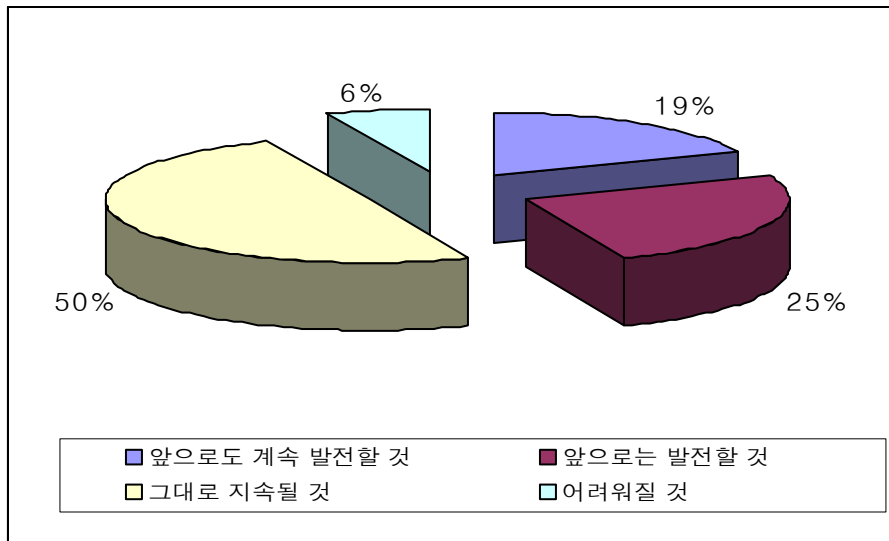
종합해 볼 때 푸른경기21은 환경적 조건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목표로 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환경적 강점을 살리고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향후 푸른경기21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Ⅲ. 푸른경기21의 발전방향 : SWOT 분석

1. 전문가 조사 분석

1) 푸른경기21의 향후 전망

<그림16> 푸른경기21 향후 전망



푸른경기21의 향후 전망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43.8%) 응답자들은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를 표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50%)은 ‘현 상태로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응답자 중 소수(6.2%)는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푸른경기21의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는 일반인들과 달리 지방의제21의 의미와 역할을 비교적 잘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의제 활동에 참여해 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응답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들의 푸른경기21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 견해는 기존의 경험을 토대로 한 단순한 낙관론에 근거하기 보다는 푸른경기21이 미래에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고려한 당위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의 푸른경기21의 활동에 대한 만족 정도가 약 1/4에 해당하는 25.1%에 머물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이점에서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 상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에서 ‘현 상태’에 대한 진단에는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푸른경기21의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

<표13> 푸른경기21 사업내용 평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 영역	부족했다고 평가되는 사업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경기21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사업 ● 푸른경기21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 사업 ● 푸른경기21 실천에 대한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경기21에 대한 주민·기업체·민간단체·각급 행정기관 참여유도 ● 푸른경기21 실천에 대한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푸른경기21이 그동안 활동해 온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에서 제시된 7가지 항목들 가운데서 비교적 잘 수행해 왔다고 평가되는 대표사업들로는 ‘교육 및 홍보사업’, ‘조사 및 연구사업’, ‘관련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 등이 순서대로 제시되었다.

한편, 푸른경기21이 가장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대표사업으로는 ‘주민, 기업, 민간단체, 행정의 참여 유도’, ‘관련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 등이 순서대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푸른경기21 자체 평가에서 교육, 홍보, 조사, 연구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수행해 온 사업들로 평가를 받게 된 데는, 푸른경기21의 공모사업들이 주로 이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관련이 깊다. 반면, 푸른경기21 활동에서 각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부족했다고 평가된 부분은 푸른경기21이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원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아직까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푸른경기21 실천에 대한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항목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푸른경기21을 구성하는 다양한 파트너들 중 NGO와 기초의제, 행정, 기업 등 주체별 특성에 따라 푸른경기21 활동에 대한 참여의 편차가 큰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각 주체별로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과 노력의 정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차이가 크며, 이는 향후 푸른경기21이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3) 푸른경기21의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푸른경기21의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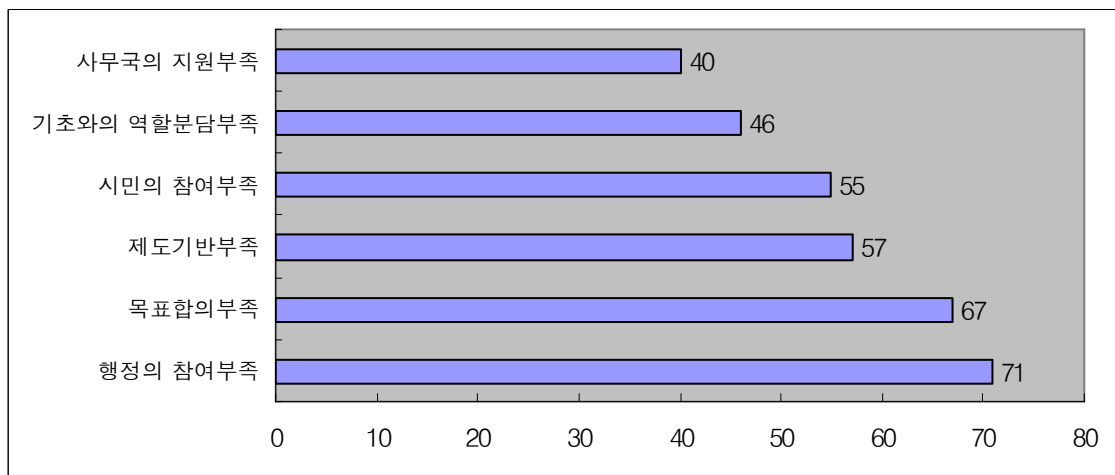
<표14> 푸른경기21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극복과제	총합 ¹⁾	평균 ²⁾	순위
푸른경기21활동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지원 부족	71	4.44	1
푸른경기21 참여자들 상호간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합의 부족	67	4.19	2
푸른경기21 활동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의 부족	57	3.56	3
푸른경기21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부족	55	3.44	4
푸른경기21과 기초의제 간의 유기적인 역할분담 부족	46	2.88	5
푸른경기21 활동에 대한 사무국의 효율적 지원체계 부족	40	2.5	6

1) 총합은 1순위=6, 2순위=5, 3순위=4, 4순위=3, 5순위=2, 6순위=1점으로 리코딩하여 각 극복과제별로점수를 합한 것.

2) 평균은 총합을 사례수 16으로 나눈 것

<그림17> 극복해야 할 과제



■ 행정의 관심과 지원 부족

우선 응답자들은 푸른경기21에 대한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의 입장에서 푸른경기21을 바라보는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예산과 물리적 공간을 푸른경기21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¹⁾ 하지만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응답자들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의제21의 실천활동에서 ‘지방정부’는 핵심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하며, 이점에서 푸른경기21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지원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응답자들 다수가 푸른경기21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행정과 직접 협의하는 경험을 가

1)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

진 사람들로 지방의제21의 거버넌스 정신에 비추어 행정이 민간주체들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담당하는데 있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 참여자 상호간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합의 부족

이러한 상이한 인식의 차이는 푸른경기21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핵심과제로 들고 있는 참여자들 상호간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합의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참여주체들 간에 목표가치인 ‘지속가능한 발전’과 실천 체계인 ‘거버넌스’에 대해 공동의 합의기반이 부족하여 푸른경기21이 당면한 과제와 발전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활동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의 부족

또한 푸른경기21의 위상 확립과 안정적인 실천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법,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세 번째 극복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역시 첫째 요인으로 들고 있는 행정의 관심과 지원 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상의 전제 조건들이 갖추어 졌을 때 푸른경기21에 대한 시민의 참여 부족 문제도 보다 쉽게 해결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응답자들의 판단이다.

4) 푸른경기21의 현재와 미래의 정체성 진단

<표15> 푸른경기21 정체성 진단

기존 활동에서 푸른경기21의 정체성	순위 (%)	향후 정립해야 할 푸른경기21의 정체성	순위 (%)
경기도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기구	1 (37.5)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기구	1 (31.3)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기구	2 (18.8)	경기도의 정책 현안 및 갈등적인 이슈에 대한 여론수렴 및 조정자	2 (18.8)
기초의제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구	3 (15.6)	기초의제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구	3 (15.6)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적 실천 기구	4 (12.5)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기구	3 (15.6)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기구	5 (9.4)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적 실천 기구	5 (9.4)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개진 및 참여의 장	6 (6.3)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개진 및 참여의 장	5 (9.4)
경기도의 정책 현안 및 갈등적인 이슈에 대한 여론수렴 및 조정자	7 (-)	경기도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기구	7 (-)

■ 환경문제를 위한 기구 vs. 거버넌스 기구

푸른경기21의 활동 내용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응답자들은 현재까지의 푸른경기21 정체성이 ‘경기도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기구’에 맞추어져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동안의 푸른경기21의 사업이 내용면에서 점차 환경 중심성을 탈피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가 나타나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지방의제21이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자체가 환경과 경제, 사회분야의 균형 있는 실천을 담보해야 한다는 이념적 규범성이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푸른경기21을 주관하는 행정부서가 환경부서라는 점과 경기도 지방의제21 명칭에서 ‘푸른’이 주는 상징성 등이 내용과 형식에 있어 불일치되는 평가를 받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비해 환경 관련이제가 정책 측면에서 행정과 갈등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푸른경기21의 대표 사업이 환경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의제 활동에 환경관련 NGO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점도 푸른경기21 활동이 환경 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푸른경기21의 기존 정체성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향후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지역 환경실천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이는 푸른경기21의 활동 내용과 형식 모든 측면에서 지역 환경문제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로 나아가야 함을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푸른경기21의 정체성 확립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푸른경기21 활동이 구성 형식 측면에서 거버넌스적 요소를 갖추는데 머물러 왔다면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과제라 할 것이다.

■ 기초의제21에 대한 지원기구

그리고 기초의제21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구로서의 역할 역시 현재까지는 물론 미래의 푸른경기21 정체성 확립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 지역현안 및 갈등 협의 기능

또한, 주목할 부분으로 경기도 정책 현안과 갈등적 이슈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조정자로서 푸른경기21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기존 활동 평가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던 것이 미래의 역할에서는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노력과 경기도민들의 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노력이 푸른경기21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²⁾

5) 푸른경기21이 집중해야 할 활동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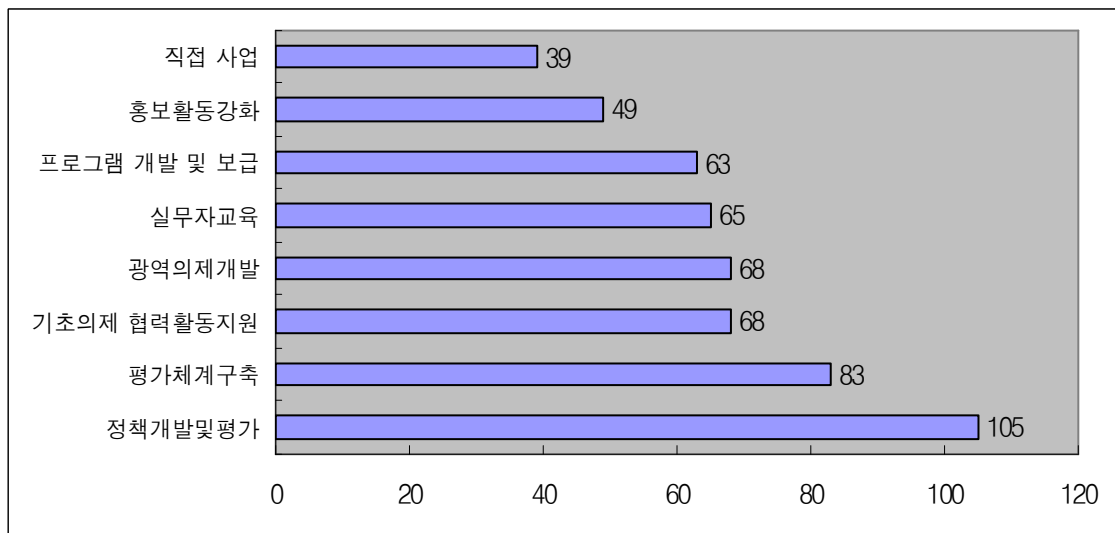
<표16> 푸른경기21이 향후 집중해야 할 활동 분야

집중분야	총합 ¹⁾	평균 ²⁾	순위
경기도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정책개발	105	7.00	1
지방의제21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체계 구축	83	5.53	2
기초의제 상호간의 협력 활동 지원	68	4.53	3
광역의제 개발 및 실천	68	4.53	3
지방의제21 관련 실무자 교육 강화	65	4.33	5
주민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3	4.2	6
지방의제21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홍보활동 강화	49	3.27	7
주민참여가 가능한 실천사업의 직접 시행	39	2.6	8

1) 총합은 1순위=8, 2순위=7, 3순위=6, 4순위=5, 5순위=4, 6순위=3점, 7순위=2점, 8순위=1점으로 리코딩하여 각 집중분야별로 점수를 합한 것.

2) 평균은 총합을 유효사례수 15(무응답=1)로 나눈 것

<그림18> 집중해야 할 활동분야



■ 경기도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관련된 정책개발 및 평가

2) 이러한 인식 경향은 이후의 푸른경기21이 집중해야 할 활동분야와 실천 방향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푸른경기21이 집중해야 할 구체적인 활동분야에 대한 의견에서는 경기도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와 관련한 정책개발 및 평가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기초의제21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체계 구축

그 다음으로 푸른경기21과 기초의제21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는 응답자들의 전문가적 특성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초의제의 협력활동 지원과 광역의제 개발 및 실천 활동이 집중해야 할 활동분야로 제시되고 있다. 이상의 활동분야들을 종합해 볼 때 전문가들은 푸른경기21은 경기도 차원의 광역의제로서 해당하는 위상에 부합하는 실천 활동들을 개발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인 직접적인 주민참여 사업의 시행은 결국 기초의제의 몫으로 돌리고 푸른경기21은 기초의제 활동을 지원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6) 푸른경기21이 역점을 두어야 할 관계개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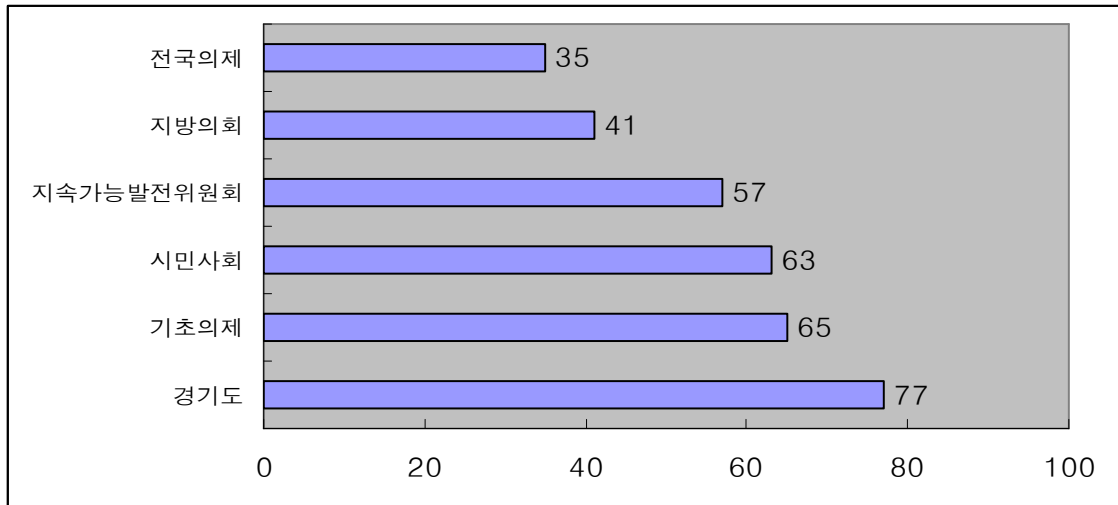
<표17> 역점을 두어야 할 관계개선 분야

관계개선 대상	총합 ¹⁾	평균 ²⁾	순위
경기도-푸른경기21	77	4.81	1
기초의제-푸른경기21	65	4.06	2
시민사회-푸른경기21	63	3.94	3
지속가능발전위원회-푸른경기21	57	3.56	4
지방의회-푸른경기21	41	2.56	5
전국의제-푸른경기21	35	2.19	6

1) 총합은 1순위=6, 2순위=5, 3순위=4, 4순위=3, 5순위=2, 6순위=1점으로 리코딩하여 각 극복과제별로점수를 합한 것.

2) 평균은 총합을 사례수 16으로 나눈 것

<그림19> 관계개선 분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푸른경기21에는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나 푸른경기21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는 구성원들간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참여주체들간의 관계 개선을 통한 신뢰 형성과 실천 역량의 결집은 푸른경기21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해결과제라 할 수 있다.

■ 경기도와의 관계 개선

이점에서 응답자들은 향후 푸른경기21이 역점을 두어야 할 관계개선 분야로 경기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들고 있다. 그 배경에는 푸른경기21과 같은 지방의제21 조직에서 인력과 예산, 정보, 정책형성 능력을 갖춘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기존의 활동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푸른경기21과 행정과의 관계가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 행정과의 관계개선 과제는 단순히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 이해당사자들간의 관계회복 차원을 넘어 지방의제21의 내용을 행정 시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자체의 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기초의제와의 관계 개선

또한 그 다음 중요한 관계개선 분야로 기초의제와의 관계를 들고 있다. 이는 그동안 푸른경기21 차원에서 기초의제와의 협력활동 경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앞으로 푸른경기21이 광역 의제로서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좀 더 분명히 하고 기초의제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관계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인데, 이 역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실천사업들은 기초의제와의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며, 동시에 푸른경기21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

기도 정책 자체에 대한 시민의 여론수렴과 평가 및 반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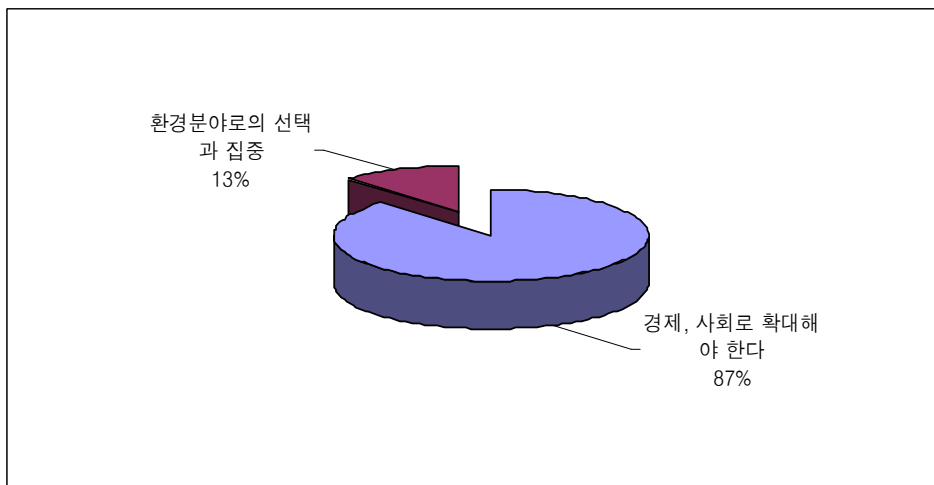
7) 푸른경기21의 발전 방향: 논쟁점

<표18> 푸른경기21의 발전 방향

구분	내용	응답율
활동 범위	가. 푸른경기21의 활동 범위와 영역을 환경분야에서 경제, 사회분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87.5%
	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활동 역량을 환경분야에 모으고 대표사업을 개발한다.	12.5%
활동 초점	가. 지역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과 갈등적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힘을 역량을 집중한다.	12.5%
	나. 장기적 전망 하에서 지방의제21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87.5%
실천 방향	가. 경기도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푸른경기21의 역량을 집중시킨다.	56.3%
	나. 주민들의 참여 역량과 실천 기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푸른경기21의 역량을 집중시킨다.	43.7%

(1) ‘활동 범위’와 관련하여

<그림20> 활동범위: 확대 vs. 집중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푸른경기의 활동 범위를 환경분야에서 경제, 사회분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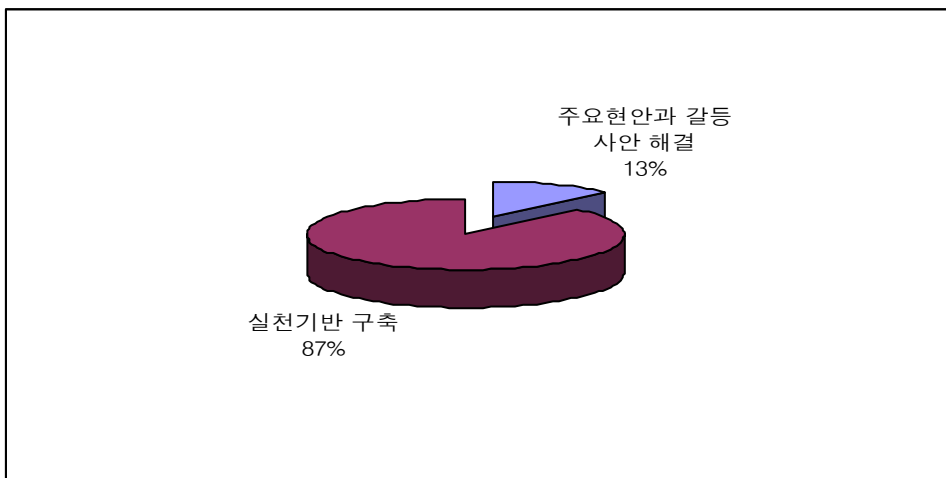
■ **규범적 입장** : 지방의제21의 기본 원칙인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 자체가 환경, 경제, 사회분야의 종합적인 발전을 요구하고 있어, 경기도가 지방의제21의 본질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3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 **실천적 입장** : 현재 푸른경기21 참여자들도 환경 이외 다양한 분야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푸른경기21이 환경분야에만 집중할 경우 기업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점에서 푸른경기21의 활동 범위도 더욱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동시에 푸른경기21 담당 행정부서도 환경국 중심에서 다른 행정부서와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수 의견으로 푸른경기21의 활동 범위를 환경 분야로 모으고 이와 관련한 대표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는 규범적이기 보다는 실천적 입장에서 전략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 있다. 즉 현재 경기도 지역 시민사회의 조건과 푸른경기21 참여 주체들의 역량, 그리고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환경분야에 실천 역량을 모으고 그 성과를 토대로 경제, 사회분야로 활동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2) ‘활동 초점’ 과 관련하여

<그림21> 활동초점: 현안해결 vs. 장기적 실천기반구축



푸른경기21의 활동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 응답자들 다수는 ‘장기적 전망 하에서 지방의제21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기반을 조성’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의 주장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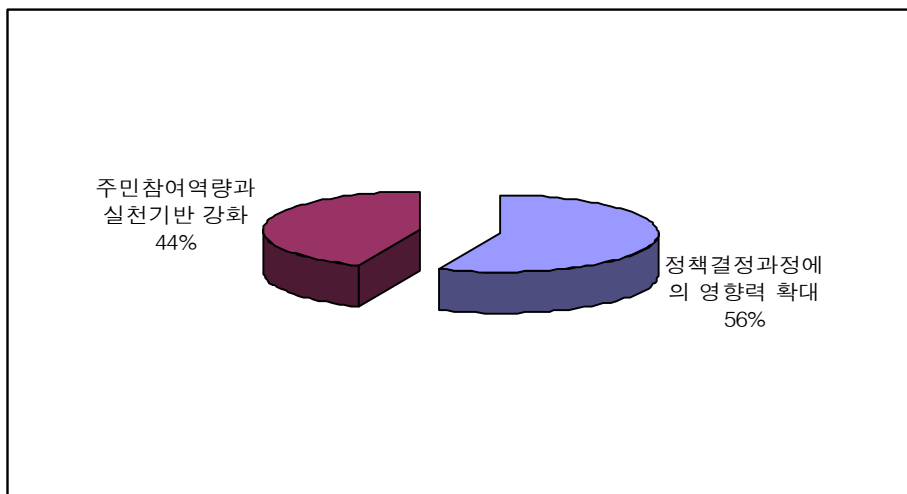
■ **규범적 입장**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망과 비전 확립이야말로 광역의제로서 푸른경기21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이다.

■ **실천적 입장** : 지역사회의 갈등에 대한 신속한 해결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제로서 갈등 문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해결 역량을 구축하는데서 해결 가능하다.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신속한 해결은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며, 푸른경기21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관련하여 기초 단위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시민사회적 토대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주민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과 광역의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한편, 응답자들 중 소수는 푸른경기21의 활동 초점을 ‘지역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과 갈등적 사안을 신속히 해결’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실천적 측면에서 지역사회가 당면한 갈등적 사안들이 결국 푸른경기21과 같은 거버넌스 기구의 파트너십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실천 방향’ 과 관련하여

<그림22> 실천방향: 주민참여역량 강화 vs. 정책결정과정의 영향력 확대



푸른경기21의 실천 방향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경기도 ‘행정에 대한 영향력 확대’

와 ‘주민참여 기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나 푸른경기21 구성원 내부에서도 실천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직 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푸른경기21의 역량을 ‘경기도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규범적 입장** : 주민실천 사업은 주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한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몫으로 푸른경기21은 광역의체로서 정체성을 고려하여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천적 입장** : 경기도의 정책결정이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과 기초의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정책과 주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집행체계를 갖춘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한편, 푸른경기21의 역량을 ‘주민들의 참여 역량과 실천기반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규범적 입장** :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시키는 노력은 어렵고 더디지만 민주주의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보다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다.

■ **실천적 입장** : 푸른경기21의 정책적 영향력도 결국 주민참여의 실천 기반이 확립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의 취약한 참여기반을 고려할 때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2. SWOT 분석 내용과 푸른경기21의 가능성 및 한계 요인

1) 푸른경기21에 대한 SEPP-SWOT 분석

강점(Strength)	
구조(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의 정도 높음 시민/주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협력 행정 지원에 따른 조직 운영의 안정적 기반
환경(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들 간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높은 이해 자율적인 조직 운영의 여건 확보 비교적 안정된 예산지원구조 (운영 및 활동관련 지원조례) 푸른경기21에 대한 기초의제의 기대와 신뢰 (푸른경기21이 기초의제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의제 상호간 네트워킹 강화 공모사업의 활성화와 실천 사업의 경험 축적 여성, 복지 분야의 참여 활성화 환경교육에 대한 특화사업 개발 지역 NGO와 기초의제들의 참여 의지 확산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참여주체 간 비전 공유 참여자 상호간 경험과 정보 공유 지역단체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 참여 주체들의 효능감 증진

약점(Weakness)	
구조(S)	<ul style="list-style-type: none"> NGO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 (참여주체의 다양성과 대표성 취약) 문제해결을 위한 파트너로서 행정의 실질적 참여 약함 구체적 실천방향과 과제에 대한 참여 주체들간 합의 부족 낮은 주민참여(의견수렴통로 미약) 기업의 참여와 실천노력이 미약
환경(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로서 법적, 제도적 기반 미약 기초의제의 활동이 푸른경기21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음 기초의제들이 처한 여건과 능력이 매우 다양하고 차이가 남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전히 높은 환경중심의 실천사업 기초의제와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 미비(사업 영역 중복) 푸른경기21 대표 사업 개발 부족(정체성 확립 미비) 장기적 전망을 갖는 사업 부족, 일회성 사업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 부족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현안대응의 취약성과 갈등 협의 기능 약함 · 정책적 영향력과 자원동원의 취약성 · 주민의 인지도 개선과 생활 및 의식 변화에의 기여 낮음 ·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책과정의 참여기회 제공 역할 약함

기회(Opportunity)

-외부- 환경(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화의 가속화와 지방자치의 정착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증대* · 주민참여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 지방의제21 활동의 보편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실천양식으로 확산) (국내 자치단체 90% 이상 참여) · 시민환경의식의 증대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 상승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과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 · 다양한 풀뿌리(지역, 주민) 단체들의 등장과 활동 · 거버넌스적 실천양식에 대한 관심의 증대 ·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유형의 지방 거버넌스 기구의 출현과 푸른경기21의 외연 확대* · 갈등관리 관련 법, 제도의 출현(갈등관리위원회, 갈등영향평가 등) · 지방선거의 도래(2006년)*
---------------	---

위협(Threat)

-외부- 환경(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가 가지는 광대한 면적과 인구규모 · 분권과 균형발전 흐름에 따른 개발압력의 심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확산) (자치단체간 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경쟁 심화)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도시 개발정책 추진 · NGO의 사회적 영향력 약화 (공공정책에 대한 감시와 압력의 역할 약화) ·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유형의 지방 거버넌스 기구의 출현에 따른 푸른경기21의 정체성 상실* · 지방선거의 도래 (2006년)*
---------------	--

* 는 기회요인이면서 동시에 위협요인이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 조직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 시민/주민단체의 협력 높음
- 행정의 지원 안정적
- 기초의제 간 네트워크 강화
- 행정으로부터의 자율성 높음
- 푸른경기 21->기초의제에 성장에 기여
- 비교적 안정된 예산지원구조
- 공모사업의 활성화
- 환경교육에 대한 특화사업 개발
- 축적된 사업경험
- 지역NGO와 기초의제들의 참여의지 확산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비전과 목표 공유
- 참여자 간 경험과 정보 공유
- 지역단체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
- 참여 효능감 증진

- 참여주체의 다양성과 대표성 의 문제
- 행정의 실질적 참여 약함
- 낮은 주민참여(의견수렴 통로 미약)
- 구체적 실천방향과 과제에 대한 합의 부족
- 행정과 기업의 협력과 실천노력 미약
- 법적, 제도적 기반 미약
- 기초의제 활동 -> 푸른경기21 활동에의 영향력 미약
- 기초의제들이 처한 여건과 능력이 매우 다양하고 차이가 남
- 기초의제와 사업 영역 중복
- 기초의제와 차별성 부족
- 푸른경기21 대표 사업 부족
- 장기적 전망을 갖는 사업 부족, 일회성 사업 과다
-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 부족
- 지역현안대응의 취약성 / 자원동원의 취약성
- 갈등 협의 기능 약함 / 주민의 생활 및 의식변화에의 기여 낮음
- 미약한 정책적 영향력 / 정책과정 주민참여 기회 제공 기능 약함
- 주민의 인지도 개선 미약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중대
- ❖지방분권완의 가속화와 지방자치의 정착
- ❖주민참여제도의 정착
- ❖지방인제21 활동의 보편화
- ❖시민환경의식의 중대
-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

- ❖경기도의 광대한 면적과 인구규모
- ❖참여주체들 간 근본적인 신뢰와 협력의 부족
- ❖개발압력의 심화
-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도시 개발정책 추진
- ❖사업을 통한 제도 및 의식변환의 근본적 한계

2) 푸른경기21의 내적 가능성과 한계 요인

구분	가능성 요인	한계 요인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형식 및 내부 운영 측면에서 거버넌스 체계 기반 마련 - 적극적 참여 주체들간 강한 결속력과 내부 파트너십 - 의사결정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NGO의 높은 참여도 - 운영에서의 높은 상대적 자율성과 행정지원에 의한 안정적 기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체계로서 실천적 위상과 역할 미비 - 참여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대표성 미약 - 시민과 기업, 행정 등 주체별 참여 정도와 역할의 불균형 - 행정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정책 및 제도적 영향력 미비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발전의 보편적 가치와 거버넌스적 실천양식에 대한 관심의 증대 - 푸른경기21의 추진 목표와 역할에 대한 기대와 높은 요구 수준 - 공모사업을 통한 실천사업의 확대와 경험 축적(교육, 홍보, 조사, 연구사업) - 기초의제와의 긴밀한 연계활동과 신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 방향과 전략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과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부족 - 기대 가치와 구체적 현실간의 괴리에 따른 갈등과 회의 - 환경중심의 실천 활동과 시민 및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미비 - 기초의제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 미비와 사업의 중복

3. 푸른경기21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와 제도화 방안

1) 푸른경기21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

(1)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 극복

현재 푸른경기21은 ‘환경’ 중심의 행정, 제도적 틀 내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포괄적 발전목표를 달성하는데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요구됨

- 참여 폭 확대 : NGO 중심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및 실천기회 제공
- 실천영역 확대 : 환경중심의 활동 영역을 사회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 영역으로 확대

(2)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제해결 및 실천능력 확대

현재 푸른경기21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내적 구심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속가능

성을 실현하기에는 시민사회의 실천 기반과 정책적 문제해결 능력이 매우 취약함.
따라서 사슴과 같은 노력들이 요구됨.

- 푸른경기21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 주민 및 지역사회의 포괄적 참여를 위한 기회 제공과 참여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푸른경기21의 정책적 영향력 확대 : 푸른경기21 내용의 정책 반영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과 전문성 구축

2) 푸른경기21의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화 과제

(1) 제도화의 필요성과 의미

오늘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각종 문제들은 기존 제도적 양식들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으로 비롯된 측면이 강하며,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 이러한 성격의 제도를 전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따라서 제도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이자 목표임.

목표 가치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전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속불가능성을 발생시키는 현실의 제도적 틀과 작동양식의 개선 또는 변형을 필요로 하고 있음.

실천 수단으로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공동 의사결정 및 실천 양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 및 전문가 주도의 하향적 정책결정 및 집행의 구조 및 관행의 개선 및 변형을 필요로 하고 있음.

따라서, 푸른경기21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로서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화 노력이 필수 과제라 할 수 있음.

(2) 제도화의 두 가지 차원

<지속가능성을 위한 푸른경기21 vs 푸른경기21의 지속가능성>

푸른경기21의 제도화는 거버넌스 체계로서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의 과제로 구분할 수 있음. 전자를 ‘협회의 제도화’라 한다면 후자는 ‘광의의 제도화’라 할 수 있음.

- 협회의 제도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푸른경기21은 유일한 거버넌스적 실천 기구로서

그동안의 다양한 실천 경험을 통해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푸른경기21 활동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통한 푸른경기21 자체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푸른경기21의 예산 및 인력 확충과 의사결정의 자율성, 책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

- 광의의 제도화

푸른경기21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푸른경기21 외에 다양한 영역의 파트너들(기초의제, 전국의제 등)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함.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법률 추진, 중앙 및 지방단위의 행정조직 개편, 거버넌스 조직에 적합한 재정지원 구조 등.

3) 제도화의 방향과 추진 전략

구분	현재	미래
협의의 제도화	<p>약한 거버넌스 (weak governa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한 문제해결 능력 • 약한 파트너십(행정, 시민, 기업 간의 소통과 협력 미비) • 캠페인성 실천프로그램(program) 중심의 참여 	<p>강한 거버넌스 (strong governa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문제해결 능력 • 행정, 시민, 기업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 정책(policy) 및 계획(plan) 수립 과정에 대한 참여
	<p>약한 지속가능성 (weak sustainabil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환경 중심의 협의의 지속가능성 추구 • 지역 중심의 실천 프로그램 • 단기적 실천 프로그램 중심 • 주어진 제도적 틀 내에서 문제해결 추구 	<p>강한 지속가능성 (strong sustainabil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경제-사회의 포괄적 지속가능성 실현 • 국가, 지구적 차원의 이슈 포함 • 중장기적 비전 및 계획 수립과 체계적 실천 포함 • 제도적 틀 자체의 변화를 통한 목표달성 실현
광의의 제도화		

푸른경기21의 제도화는 그 중요성만큼 현실 여건과 역량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그 이유로 우선 제도화가 가지는 양면적 속성을 들 수 있음. 제도화는 실천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역동성을 제약하고 획일화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기존 제도 자체의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새로운 양식의 제도를 설계하고 적용하는데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됨.

결국 제도화는 결국 정치 및 행정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추동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화로 인한 장점 요인을 최대화하면서 단점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임. 준비되지 않은 제도화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음.

따라서 푸른경기21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 전략은 푸른경기21의 내적 역량 결집과 사회적, 정책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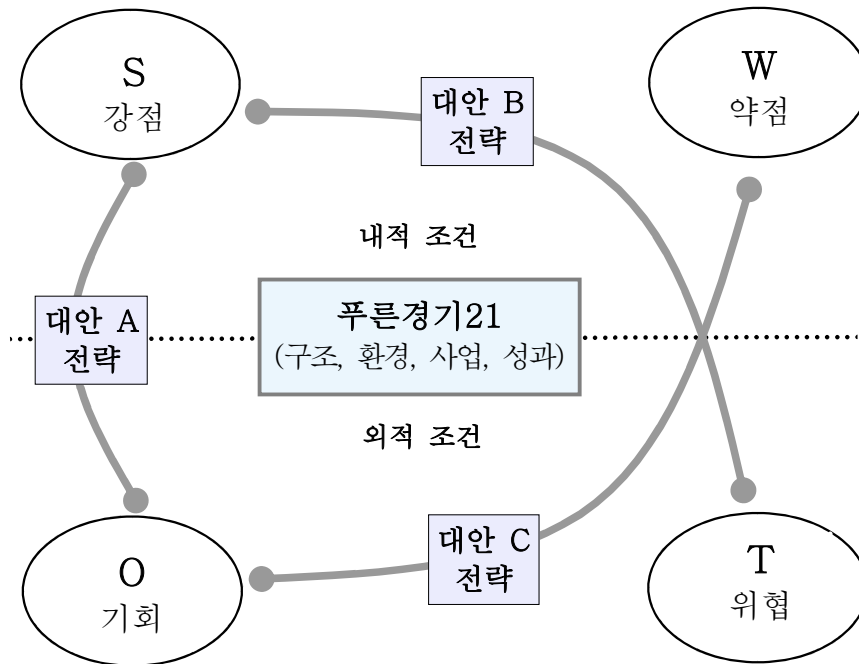
4. 푸른경기21의 발전방향과 전략적 단계

1) 푸른경기21 활성화 전략

(1) 전략수립의 원칙

- 지속가능성을 위한 푸른경기21의 위상 및 역할 확립의 중장기적 과제와 푸른경기21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현실적 과제를 함께 고려한 단계적 전략 수립
- 푸른경기21이 처한 현실적 조건과 내부 역량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 외부 여건변화의 도전과 기회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 지방의제21의 보편적 가치와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함께 고려

(2) 전략 유형 및 내용



<SO 전략 : 네트워크 전략> 푸른경기21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결합한 전략

푸른경기21은 구성 형식과 내부 운영 측면에서 거버넌스 체계의 기반을 비교적 안정되게 갖추고 있는 경기도 최대의 협의체로서, 7년여 간의 운영 경험을 통해 참여 구성원들 상호간의 내적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점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분권과 자치, 주민참여의 제도적 기반들이 확충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적 실천양식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푸른경기21을 활성화하는 전략 수립이 요청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 노력들이 필요함.

- intra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푸른경기21 내부 구성원간의 소통과 합의 증대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구성원들간의 합의기반 확충
 - ‘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구성원들간의 신뢰기반 확보
- inter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푸른경기21과 외부 조직(파트너)과의 연대와 협력
 - 푸른경기 참여주체들의 다양성 확보와 협력 강화
 -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경험과 정보의 공유 및 공동사업 개발
(지방의제21 홍보 교육관 설립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지역내 네트워크, 지역간 네트워크 활성화)
(국제적 네트워크 - 아시아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체계 구축)

- 푸른경기21과 기초의제와의 유기적 역할분담체계 확보
(기초의제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기초의제들이 서로 연대하여 실천할 수 있는 의제 공동기획)
(기초의제와의 협력 하에 주민의견 수렴 및 의제활동 활동 모니터)

<WO 전략 : 생활화 전략> 푸른경기21의 약점을 기회요인을 통해 극복하는 전략

푸른경기21 활동에 대한 시민 및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며, 푸른경기21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실질적 변화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매우 미약함. 이는 푸른경기21이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 역량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푸른경기21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약점 요인이 확대될 경우 행정과의 제도적 연계와 자율성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지방거버넌스의 출현과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등장으로 인해 푸른경기21의 정체성 확립 자체가 힘들게 될 것임.

따라서 지방분권 및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가시화 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는 여건 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푸른경기21이 지역주민의 생활 속으로 가깝게 다가가는 실천 노력이 필요함.

- 참여기회 확대

- 푸른경기21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공모사업의 활성화
(ex. 경기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 모델 개발
경기도 정책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실시와 시민의견 개진 및 참여의 장 마련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시민사회들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축제의 공동기획 및 추진 (지구의 날, 환경의 날 기념 등)
-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과 의제활동 홍보 강화
- 의제 재작성시 지역적 특성과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제 발굴 및 반영
(ex. 마을의제, 생활의제 발굴 및 체계화
경기도 내 수계별 수질현황에 대한 주민참여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권역별 수질개선 대책 수립)
- 푸른경기21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대표사업과 공동 브랜드 개발
(ex. 학생, 청소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관련 실천사업의 지속적인 실시.
환경교육 강사 배출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경기도 환경교육 종합관 건립)

- 실천역량 강화

- 참여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기초의제 실무자, 학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방의제21 교육 강화
- 실천사업에 대한 모니터 및 평가와 피드백 체계 마련
- 기초의제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공동실천사업 개발
- 광역 차원의 의제 개발
- 실천 사업의 평가와 피드백 체계 마련

<ST 전략 : 정책화 전략> 푸른경기21의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요인을 최소화하는 전략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규제완화 흐름이 가속화 되면서 경기도 차원의 개발압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개발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책의 지속불가능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푸른경기21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음. 정책 추진 주체인 경기도 행정과 정책 감시 및 비판자 역할을 담당하는 NGO간의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이 푸른경기21 내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참여와 파트너십에 기반한 푸른경기21 거버넌스 체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책 갈등을 최소화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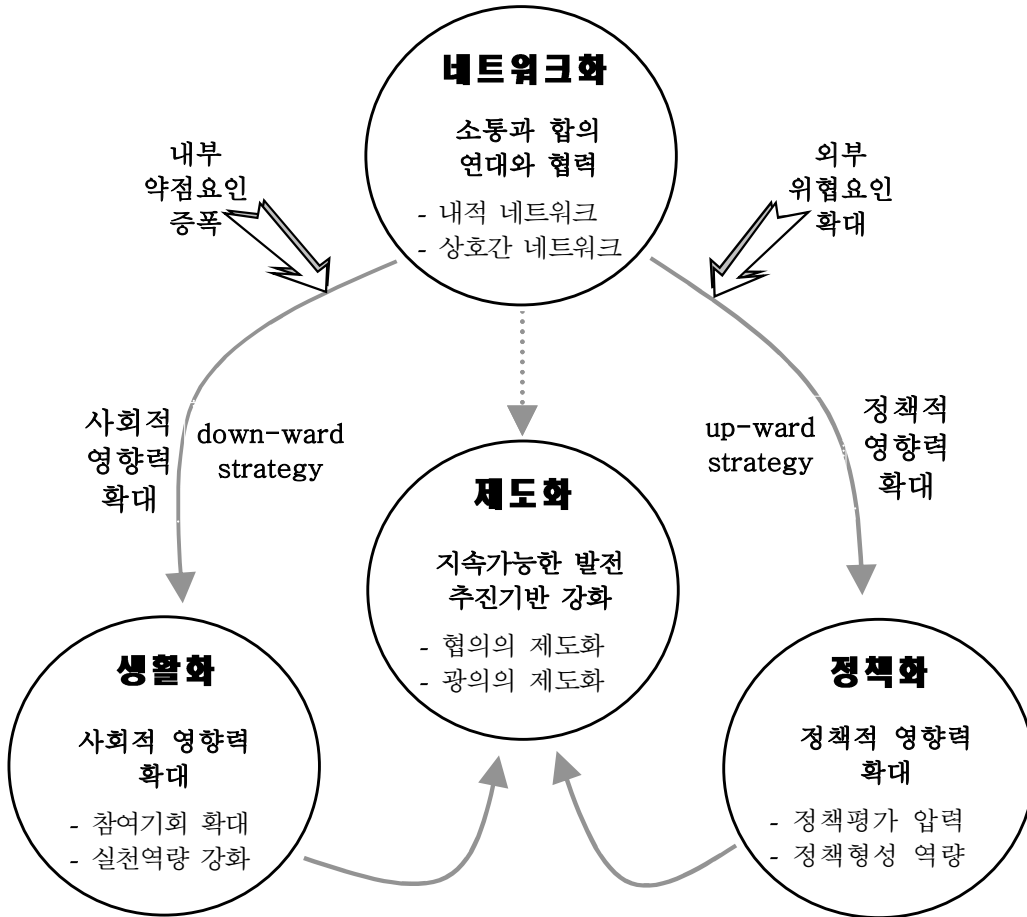
- 정책 평가 및 영향력 확대

-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및 평가시스템 구축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공동 추진
- 주민참여 제도를 활용한 정책 정보의 공개 및 여론수렴 기능 확대
- 푸른경기21과 행정계획의 제도적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제 재작성
- 갈등관리위원회의 갈등영향 분석 기능과 푸른경기21 정책평가 기능의 연계

- 정책형성 역량 개발

-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 개발
(ex.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경기도 차원의 대책 수립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에너지 사용실태 조사, 자치단체별 행동계획 및 에너지 실천방안 수립)
경기도 지역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진단과 주민 참여적 실천사업과의 연계
민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 및 기지이전을 둘러싼 주민갈등 조정, 이전 기지터의 환경친화적 이용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지방의제21 정책센터 - 자료 및 정보수집, 모델개발, 정책 포럼 지원 및 운영
- 푸른경기21 내 정책 자문기능 강화
- 공모사업 중 실천사업 외에 정책사업의 영역 확대
- 경기도 내 유관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ex. 경기개발연구원, 대학 등)

2) 전략 추진 단계



(1) 단기 전략 :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과 에너지의 결집

구조, 환경,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환경 > 구조 > 성과)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적 조건을 활용하여 구조적 측면에서 강점 요인들을 적극 활용하는 차원에서 푸른경기 21 활성화 전략이 출발될 필요가 있음.

즉 현재의 여건 속에서 푸른경기21이 위상과 역할을 강화 높일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분산되어 있는 주체와 자원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집중시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1단계: 푸른경기21의 비전과 정체성에 대한 공론화와 합의
푸른경기21 참여 주체들간에 소통과 협의 과정을 활성화 시켜 푸른경기21의 비전

과 전망,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목표와 실천 전략에 대한 공동의 합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기존의 푸른경기21 차원에서 제기된 요구들간의 긴장을 해소시킬 필요성

- 시민, 주민의 관심과 참여 부족 해결 vs 행정의 관심과 지원 부족 해결
- 기초의제, 시민사회와의 관계 회복 vs 행정과의 관계 회복
- 의제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vs 의제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 확대

- 2단계: 기초의제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실천기반 확립

광역의제로서 푸른경기21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기초의제와의 교류 활성화와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과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중기전략 :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거버넌스 기구로 전환

- 1단계 : 생활화(action oriented down ward) 전략 추진

- 기초의제와의 연계를 통해 형성된 의제의 실천 기반을 주민생활에 기반한 의제의 실천 활동으로 승화.
- 푸른경기21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환경부서 내 지방의제21 전담조직(팀) 및 인력(계장급) 배치

- 2단계 : 정책화(policy oriented up ward) 전략 추진

- 경기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와 연계하여 경기도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진단 및 정책 조율기능 강화
- 지속가능발전국 설립 및 지속가능발전담당관(과장급) 신설

- 3단계 : 푸른경기21을 ‘경기 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로 전환

- 경기도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정책대안 개발 기능은 ‘경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 하고, 푸른경기21은 지역 내 문화, 복지 거버넌스 기구들과 대통합하는 방식으로 ‘경기 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로 전환함
- 이를 통해 환경, 복지, 문화, 경제영역을 통합적으로 조율하면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방행동21(Community Based Local Action 21) 체제 구축
- 기초의제가 중심이 되어 생활의제, 마을의제를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적 모델을 개발하고, 광역의제인 푸른경기21은 의제 실천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제도와 재정, 정보 및 전문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또한 경기도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사업으로 광역의제, 유역의제를 개발하고, 지구적 차원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류 및 실천사업들을 전개 나감.

5. 푸른경기21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1) 푸른경기21의 역량형성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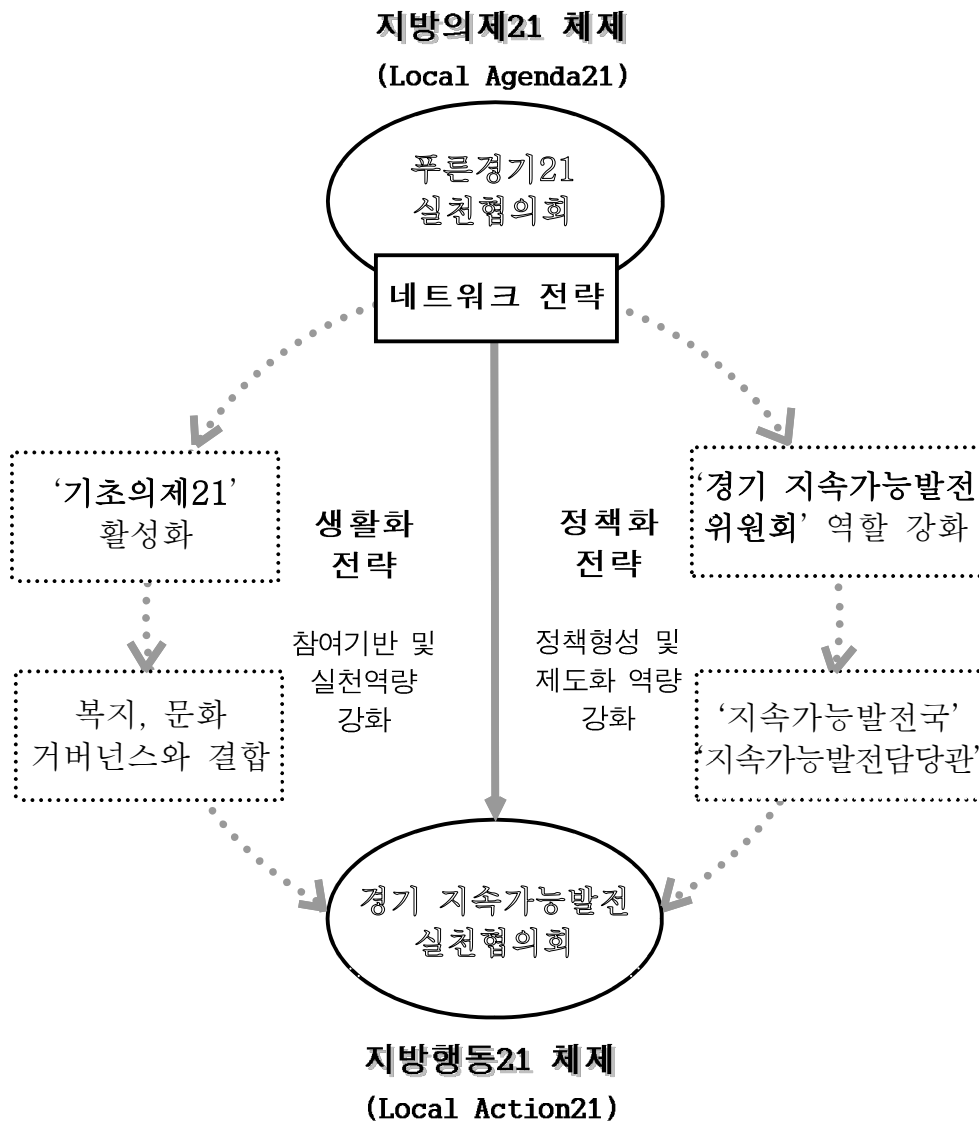
광역의제로서 거버넌스 기구인 푸른경기21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린 네트워크 활성화 노력이 현재의 조건 속에서 푸른경기21 발전을 위한 우선적인 실천과제임. 이는 푸른경기21이 현재의 제도적 조건 속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정책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 푸른경기21은 네트워크의 촉진자(network facilitator) 또는 조율자(network coordinator)로서 역할을 분명히 정립하고 네트워크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로서 푸른경기21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푸른경기21의 조직적 전망은 네트워크 체계에 기반한 ‘경기 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로의 전환에 있음. 의제의 명칭과 내용, 위상과 역할의 변화가 필요함. 이는 현재의 지방의제21(local agenda21) 체제를 명실상부한 실천조직인 지방행동21(local action21) 체제로 발전시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실천력을 기반으로 푸른경기21과 기초의제, 경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현재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고 있는 복지 및 문화 영역의 거버넌스 체제들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 내에서 함께 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경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변화는 광역의제로서 푸른경기21의 특성상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실천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화 전략을 추진하고,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에서 정책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음.



2) 푸른경기21 조직구성 및 역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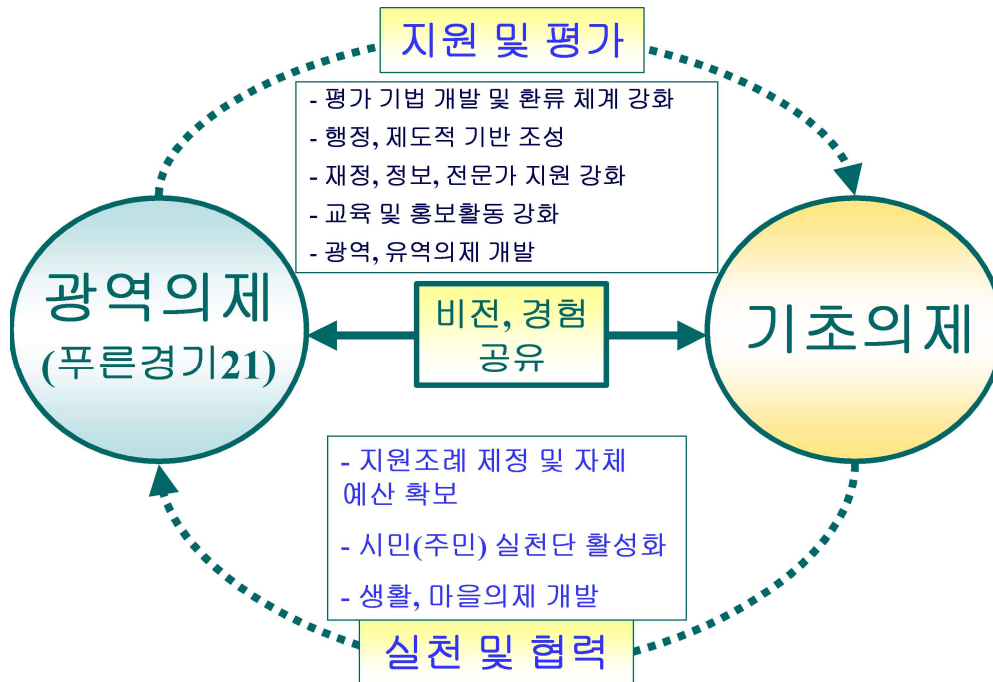
푸른경기21의 실천 및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푸른경기21 참여 위원의 폭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막연한 외연 확대 보다는 조직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실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구성을 함께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 과제들이 제기됨.

(1) 기초의제의 참여확대와 협력체제 강화

기초의제는 푸른경기21이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기초의제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의제활동의 실천 기반을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광역의제와 기초의제간 관계가 구조적으로는 독립적이면서도 기능적으로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자발성에 기반한 유기적인 역할분담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푸른경기21 조직내에 있는 ‘기초의제협의회’, ‘교류협력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체계화 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기초의제 실무자들 상호간의 경험 및 정보를 공유는 물론 기초의제의 의견을 수렴하여 푸른경기21로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함
- 경기도 차원의 광역적 이슈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응과 대안제시 능력 강화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의제사업의 발굴 및 푸른경기21 활동에 대한 반영

(2) 푸른경기21 의제 내용과 밀접한 실천 네트워크 조직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푸른경기21 의제활동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하여 의제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천 네트워크들을 의제활동의 주체로 적극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개별 개인 또는 단체에 비해 단체들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연결망으로서 네트워크

크는 자원과 정보의 효율적 교환과 전문성과 실천력의 상호 보완을 통해 공동의 실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현재 경기도 내에 푸른경기21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 들로는 다음과 같음.

- 경기쓰시협
- 경기소각장연대회의
- 하천살리기네트워크(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 한강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평택호 물줄기네트워크, 한탄강네트워크)
- 연안네트워크
- 경기도에너지시민연대
- 녹색구매네트워크
- 환경교육네트워크(경기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 경기환경교육포럼)
- 여성네트워크(여성분과, 여성정치네트워크 등)
- 보행권네트워크
- 지방분권네트워크

이 외에도 의제활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하고 새로운 네트워크 조직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푸른경기21 차원에서 실천사업 등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또한 다양한 분야의 자발적 네트워크들이 푸른경기21 실천 활동과 긴밀히 결합되기 위해서는 푸른경기21 운영과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네트워크의 핵심(core) 역할을 하는 단체 대표들의 운영위원회 참여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3) 네트워크에 기반한 푸른경기21 내부 조직 및 기능의 변화

현재 푸른경기21의 4개 분과 즉 ‘생활환경분과’, ‘자연생태분과’, ‘도시사회분과’, ‘여성분과’는 의제를 구성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체제임. 이러한 체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제에 담긴 내용과 분과활동 내용과의 연계와 분과 상호간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이 있어야 함. 하지만 현재의 분과체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변화가 필요함.

또한 현재 분과체계는 구성 형식에서 거버넌스 모습을 잘 갖추고 있으나 실천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함. 특히 분과위원회에 기초의제 담당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의 포괄적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 기초의제의 입장에서 주제 및 영역별로 분화된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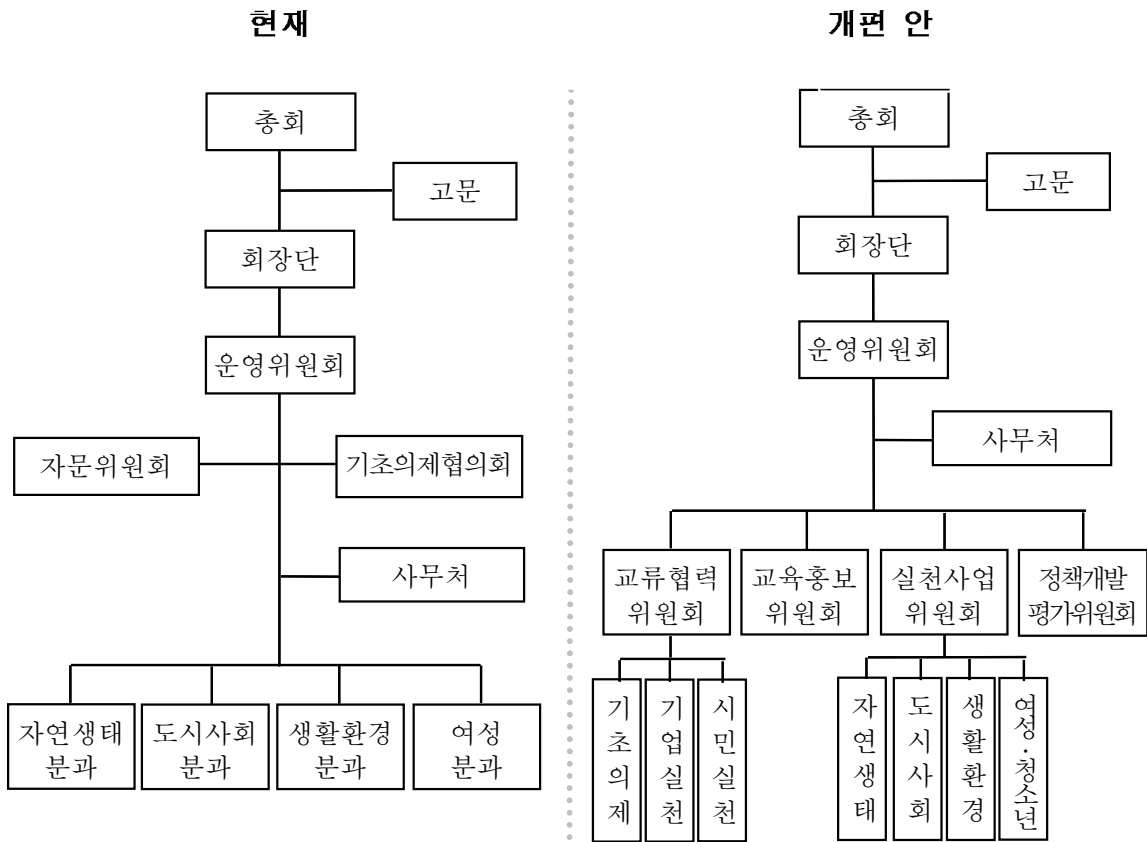
이 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기능 및 구조변화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내용’ 중심으로 편제된 분과위원회 구조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교류협력위원회’, ‘교육홍보위원회’, ‘실천사업위원회’ 등)

한편, 현재 푸른경기21의 자문위원회는 실천협의회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실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주기적 평가’, ‘환경 및 제반 사회정책의 건의’ 등에 관한 자문역할을 활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변화가 필요함

-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표성 보다는 전문성과 참여 여건 및 헌신성을 고려한 실무 중심체제로 전환하여 ‘정책개발 및 평가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의제의 실천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사무처 차원에서 의견수렴 통로를 공식화시킬 필요가 있음
- 자문위원회의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시켜 푸른경기21 차원에서 경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와의 정책 조율 및 조정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함



2) 푸른경기21 사무처의 구성 및 역할 변화

네트워크 코디네이터로서 사무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즉 현재의 제한된 사무처 인력으로 실천 사업들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천 단위별로 사업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사무처는 사업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보다 구체적인 사무처 구성 및 역할의 변화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조직의 정체성에 맞게 일정한 원칙에 따른 업무 분장이 필요
 - 업무의 분담 세부항목을 문서화하여 구성원에 변화가 있어도 사업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경험의 효율적 전달과 학습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식적 업무분담과 함께 연중 업무, 일시적 업무의 비중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유동적 업무조정이 가능한 업무 세부 항목들을 미리 정하여 놓을 필요가 있음. (개인적 부탁에 의한 업무 이전 방지)
- 사무처 실무자의 분야별 기획력과 전문성 강화 필요
 -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위체계보다는 개인의 기획능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함.
 - 회의준비-연락-문서작성 등의 단순 업무로 이루어져 있는 분야별 분과사업관리 업무를 단순화 혹은 정보화시키고, 정보 수집 및 분석, 광역 사업기획 등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업무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 의사결정체계의 공식화, 다양화
 - 의견수렴 및 정보수집을 위해 개인적, 비공식적 연결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홍보, 정보관리 분야에 있어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강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관련 전문가 풀, 사업진행의 노하우, 평가는 물론 실무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단기 기획 사업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네트워크 코디네이터로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사무처장의 임기의 탄력적 연장이 필요함
 - 업무의 성격상 ‘회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전용회의실 확보가 필수적

으로 요구됨

- 장기적으로, 민관 협력을 위한 자료실 운영이 필요함

3) 푸른경기21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를 촉진하는 실천사업 개발

푸른경기21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천사업 형식과 내용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 형식 측면에서 단체의 개별 참여 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공모시 2-3 개 이상의 단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관련하여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광역의제 또는 유역의제를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비무장지대 생물다양성 보존, 팔당상수원유역 보존, 시화호 살리기, 해양생태계 보존 등)
- 단발식 나눠주기식 사업지원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지속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실천경험의 축적을 통해 지방의제21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모델의 개발 및 보급은 학급효과를 동반한 실천사업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주민참여적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적 생태계(산림, 하천, 습지) 보전, 주민참여적 폐기물 및 자원관리 등)
- 내용 측면에서 사전예방적이고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사업들을 개발. 환경-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사업의 개발로 광역 및 기초의제 활동의 환경중심성을 탈피하고 행정과의 연계성을 높여나감. 관련하여 매체별 관리(out-put 중심)의 사업에서 자원이용 및 관리(in-put 중심의 사업)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WEHAB 의제(물, 에너지, 보건·건강, 농업, 생물다양성)의 의미도 이와 관련이 깊음.
 - 생산영역(기업)의 의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녹색소비자 운동, 녹색구매운동, 기업의 자발적 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 및 평가 사업
 - out-put 중심의 사업(오염매체별 관리)에서 in-put 중심의 사업(자원이용 및 관리)으로 전환 - 물, 농업, 생태계, 에너지, 토지이용 관련 실천사업